

WEBVTT

00:00:09.935 --> 00:00:11.128

이번에는 6강입니다.

00:00:11.228 --> 00:00:14.436

폼사에서 두 번째 부분,
관계언을 공부하도록 할게요.

00:00:14.536 --> 00:00:18.278

지난 시간에 체언을
봤었는데 체언에 더해져서

00:00:18.378 --> 00:00:22.047

문장 성분을 만들어주는 폼사를
우리는 조사라고 부르고

00:00:22.147 --> 00:00:27.394

관계를 만들어주는 폼사 안에는 조사,
딱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.

00:00:27.494 --> 00:00:31.369

이제 조사를 공부해보도록
할 텐데요.

00:00:31.469 --> 00:00:36.457

우선 조사를 쪼개게 되면,

00:00:36.557 --> 00:00:41.880

크게 격조사,

00:00:41.980 --> 00:00:44.983

그다음에 보조사,

00:00:45.083 --> 00:00:47.270

그리고 마지막 접속 조사.

00:00:47.370 --> 00:00:52.092

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.

00:00:52.192 --> 00:00:54.140

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 겁니다.

00:00:54.240 --> 00:00:58.137

격조사, 보조사, 접속 조사
모두 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

00:00:58.237 --> 00:01:01.339

체언 뒤에 붙을 수
있다는 거는 맞는데.

00:01:01.439 --> 00:01:04.365

여러분이 이것을 외우셔야 돼요.

00:01:04.465 --> 00:01:10.642

격조사의 종류, 그리고 격조사에
해당하는 예들을 전부 다 짚끔하게.

00:01:10.742 --> 00:01:13.404

부사격 조사 때문에 조금

양이 많기는 하지만

00:01:13.504 --> 00:01:15.861

그거를 깔끔하게
공부해주면 좋겠습니다.

00:01:15.961 --> 00:01:19.085

왜냐하면 보조사가 좀
많아요, 너무 많아요.

00:01:19.185 --> 00:01:24.464

그런데 격조사를 외우면 분명
체인 뒤에 붙어 있는 조사인데

00:01:24.564 --> 00:01:26.547

내가 알고 있는 격조사가 아니네.

00:01:26.647 --> 00:01:29.051

그러면 이거는 보조사, 이렇게
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

00:01:29.151 --> 00:01:32.004

접속 조사는 아예 형태적으로
구분이 분명히 되거든요.

00:01:32.104 --> 00:01:34.407

그래서 격조사를 완벽하게 기억해놓고

00:01:34.507 --> 00:01:38.211

보조사는 그냥 접할 때마다
이런 것도 보조사구나.

00:01:38.311 --> 00:01:42.562

이렇게 알아나가면 되는 거지
전부 외울 수는 절대 없습니다.

00:01:42.662 --> 00:01:44.186

양이 많기 때문에.

00:01:44.286 --> 00:01:46.408

그래서 오늘의 목표는
격조사를 외우는 거를

00:01:46.508 --> 00:01:48.722

제1의 목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

00:01:48.822 --> 00:01:50.610

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로
나뉜다는 거 알려드리고.

00:01:50.710 --> 00:01:53.778

처음에는 격조사를
들어가도록 할게요.

00:01:53.878 --> 00:01:59.809

이 문장 괄호 안에 조사들을
제가 넣어보려고 해요.

00:01:59.909 --> 00:02:05.219

지금 똑같이 괄호 앞에
있는 단어들은 나비입니다.

00:02:05.319 --> 00:02:11.695
나비라는 명사가 잡혀 있는 건데.

00:02:11.795 --> 00:02:18.223
그러면 이 나비는 품사로
따지게 되면 명사잖아요.

00:02:18.323 --> 00:02:21.015
그런데 문장 성분은 뭘까요?

00:02:21.115 --> 00:02:23.927
나비의 문장 성분은 뭐가 뭘까요?

00:02:24.027 --> 00:02:28.203
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
잘못된 질문이에요.

00:02:28.303 --> 00:02:30.900
왜냐하면 문장 성분이
결정되지를 않았어요.

00:02:31.000 --> 00:02:32.954
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서술어인지

00:02:33.054 --> 00:02:37.527
부사어인지 관형어인지
알 수가 없습니다.

00:02:37.627 --> 00:02:40.757
즉 체언의 경우에는
이 명사인 경우에

00:02:40.857 --> 00:02:43.169
이게 문장 성분이 결정지어지려면

00:02:43.269 --> 00:02:45.065
바로 조사랑 붙어 있어야
된다는 이야기인데.

00:02:45.165 --> 00:02:47.790
그래서 이제 괄호 안에
조사를 넣어볼 거고

00:02:47.890 --> 00:02:50.722
이 조사의 종류에 따라 문장 성분이

00:02:50.822 --> 00:02:53.209
총 일곱 가지로 나뉘어진다는
거를 알게 될 텐데요.

00:02:53.309 --> 00:02:54.919
먼저 첫 번째 가볼까요?

00:02:55.019 --> 00:02:56.169
뭐 넣을래요?

00:02:56.269 --> 00:02:57.994
나비 () 꽃 위에 앉았다.

00:02:58.094 --> 00:03:00.567

나비가, 이게 좋겠네요.

00:03:00.667 --> 00:03:05.230

나비가 꽃 위에 앉았다,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되겠고.

00:03:05.330 --> 00:03:10.650

그러면 여기서 는 기본적으로 서술어가 앉았다잖아요.

00:03:10.750 --> 00:03:12.433

그러면 뭐가 앉았습니까?

00:03:12.533 --> 00:03:14.093

그렇죠, 나비가 앉았죠.

00:03:14.193 --> 00:03:16.571

그래서 애는 지금 주어 가 됩니다.

00:03:16.671 --> 00:03:23.830

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가 는 바로 주격 조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군요.

00:03:27.516 --> 00:03:32.575

체언에 주격 조사가 붙게 되면 그 문장 성분,

00:03:32.675 --> 00:03:36.753

이렇게 띄어 쓰는 단위가 전부 다 문장 성분을 따질 수가 있게 되는데.

00:03:36.853 --> 00:03:39.445

나비가, 이 문장 성분은 뭐가 된다?

00:03:39.545 --> 00:03:40.683

주어가 되는 거죠.

00:03:40.783 --> 00:03:44.550

그래서 주격 조사의 가를 확인해봤습니다.

00:03:44.650 --> 00:03:49.281

그다음, 동생이 나비() 잡았다.

00:03:49.381 --> 00:03:52.608

애는 지금 서술어 잡았다가 나와 있는데

00:03:52.708 --> 00:03:55.404

잡은 주체는 이미 나왔어요.

00:03:55.504 --> 00:03:56.650

동생이죠.

00:03:56.750 --> 00:04:01.521

그런데 잡았다는 거는 주어 말고도 뭐를 잡았는지가 필요합니다.

00:04:01.621 --> 00:04:02.981

바로 목적어가 필요하죠.

00:04:03.081 --> 00:04:08.698
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나비
부분은 목적어가 나와줘야 되고.

00:04:08.798 --> 00:04:12.277
목적어로 만들어줄 수 있는
조사로 뭐가 쓰입니까?

00:04:12.377 --> 00:04:16.446
나비를, 이게 쓰이면 좋겠군요.

00:04:16.546 --> 00:04:25.500
따라서 틀이 붙게 되면 목적격
조사, 목적어가 된다는 거죠.

00:04:25.600 --> 00:04:27.289
그다음 가겠습니다.

00:04:27.389 --> 00:04:29.927
나비() 날개는 매우 아름답다.

00:04:30.027 --> 00:04:33.574
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
나비() 날개,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.

00:04:33.674 --> 00:04:35.892
그러면 이 자리에 뭐가
들어와야 되겠죠?

00:04:35.992 --> 00:04:37.996
나비의 날개.

00:04:38.096 --> 00:04:41.715
우리 지난 시간에 관형어를
만들어줄 수 있는 재료로

00:04:41.815 --> 00:04:45.769
체언 더하기 관형격 조사 의가
더해지는 예를 하나 들었는데.

00:04:45.869 --> 00:04:48.181
관형격 조사는 딱
하나밖에 없거든요.

00:04:48.281 --> 00:04:49.450
바로 의입니다.

00:04:49.550 --> 00:04:53.885
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
날개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서

00:04:53.985 --> 00:04:56.993
앞에 나비의, 이게
나왔다는 이야기죠.

00:04:57.093 --> 00:04:59.198
그래서 이렇게 꾸며주게
되는 거니까.

00:04:59.298 --> 00:05:06.245

따라서 이때 의는 관형어를
만들어줄 수 있는 조사.

00:05:06.345 --> 00:05:11.245
관형격 조사라고 불러줍니다.

00:05:16.377 --> 00:05:18.083
다음.

00:05:18.183 --> 00:05:21.803
나는 요즘 나비() 폭 빠졌다.

00:05:21.903 --> 00:05:25.398
취미가 생겼어요, 계속
연구하고 박제하고 하나 봐요.

00:05:25.498 --> 00:05:28.544
어떻게 나와야 돼요?

00:05:28.644 --> 00:05:33.123
나비에 폭 빠졌다, 이게 좋겠죠.

00:05:33.282 --> 00:05:35.867
그러면 애는 어떠한
문장 성분이 될까요?

00:05:35.967 --> 00:05:38.282
지금 서술어는 빠졌다가 나와 있고

00:05:38.382 --> 00:05:40.643
주어는 나는 빠졌다,
이미 나와 있습니다.

00:05:40.743 --> 00:05:44.721
그러면 여기 나비라는
것은 어떤 기능입니까?

00:05:44.821 --> 00:05:46.657
나비에 빠지다.

00:05:46.757 --> 00:05:53.204
빠지다는 품사로 따지게 되면
애는 동사가 될 텐데.

00:05:53.304 --> 00:05:58.808
이렇게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줄
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.

00:05:58.908 --> 00:06:00.442
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?

00:06:00.542 --> 00:06:06.908
부사격 조사라고 부르게 됩니다.

00:06:07.008 --> 00:06:09.817
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
문장 성분은 뭐다?

00:06:09.917 --> 00:06:13.845
부사어가 되는 거죠,
그래서 부사어.

00:06:13.945 --> 00:06:16.378

헛갈리면 안 돼요, 지난
시간 거랑 똑같습니다.

00:06:16.478 --> 00:06:20.982

체언을 꾸미는 품사는
관형사라고 해요.

00:06:21.082 --> 00:06:24.982

그런데 체언을 꾸미는 문장
성분은 관형어라고 하는 거죠.

00:06:25.082 --> 00:06:26.601

다시.

00:06:26.701 --> 00:06:38.114

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을

00:06:45.304 --> 00:06:49.816

얘는 관형어라고 하고.

00:06:49.916 --> 00:06:56.939

그다음에 체언을 수식하는
품사, 즉 단어는

00:06:57.039 --> 00:07:00.347

관형사라고 하고.

00:07:00.447 --> 00:07:04.077

관형사와 관형어의 관계를
따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?

00:07:04.177 --> 00:07:06.493

이렇게 포함하는 관계가
만들어진다는 거였어요.

00:07:06.593 --> 00:07:10.134

그래서 상위 단계라고 보면
되는 건데, 똑같아요.

00:07:10.234 --> 00:07:25.822

지금 주로 용언을 수식하는
문장 성분은 뭐라고 한다?

00:07:25.922 --> 00:07:29.355

얘를 부사어라고 이야기한다고요.

00:07:29.455 --> 00:07:35.114

그런데 주로 용언을 수식해주는
품사, 단어를 물어보면

00:07:35.214 --> 00:07:39.333

그러면 부사어라고 하면 안 되고
그냥 부사라고 이야기해야 되고.

00:07:39.433 --> 00:07:40.977

역시 관계는 똑같습니다.

00:07:41.077 --> 00:07:45.052

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부사어가

부사를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.

00:07:45.152 --> 00:07:47.180
그러니까 부사는 부사어가 되는데

00:07:47.280 --> 00:07:49.509
부사어라고 해서 다
부사는 아닌 거죠.

00:07:49.609 --> 00:07:51.714
그러니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.

00:07:51.814 --> 00:07:53.477
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

00:07:53.577 --> 00:07:55.435
여기도 보면 꼭 있잖아요.

00:07:55.535 --> 00:07:57.464
꼭의 품사가 뭐냐? 부사예요.

00:07:57.564 --> 00:07:59.440
사전 찾으시면 부사로 나오는 건데.

00:07:59.540 --> 00:08:05.626
애도 지금 꼭 빠졌다, 빠지다라는
동사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

00:08:05.726 --> 00:08:07.210
애는 품사가 부사예요.

00:08:07.310 --> 00:08:10.355
그러나 나비에는, 이거는
품사가 부사가 아니죠.

00:08:10.455 --> 00:08:13.659
왜? 끊게 되면 단어
2개로 나뉘지는 거죠.

00:08:13.759 --> 00:08:17.282
그래서 나비라는 명사에, 나비는
지금 전부 다 명사잖아요.

00:08:17.382 --> 00:08:20.118
명사에 이 예가 붙어서
부사어가 된 겁니다.

00:08:20.218 --> 00:08:22.266
그러면 이 예를 뭐라고 부른다?

00:08:22.366 --> 00:08:24.707
바로 부사격 조사라고
불러준다는 거죠.

00:08:24.807 --> 00:08:30.714
그래서 예 같은 거를 잡아왔고요.

00:08:30.814 --> 00:08:36.841
그다음 이것은 나비().

00:08:36.941 --> 00:08:42.620

나비이다, 이게 오면 되겠죠.

00:08:42.720 --> 00:08:45.154
이 이다는 뭐라고 부른다고요?

00:08:45.254 --> 00:08:50.913
여기서 지금 이것은, 이라는 주어에
호응하는 서술어가 만들어졌잖아요.

00:08:51.013 --> 00:08:55.015
그래서 서술어를 만들어주기
위한 조사를 뭐라고 한다?

00:08:55.115 --> 00:08:59.676
서술격 조사.

00:09:02.582 --> 00:09:06.581
다음, 이것은 나비() 아니다.

00:09:06.681 --> 00:09:08.364
여기 뭐 들어갈까요?

00:09:08.464 --> 00:09:11.476
이것은 나비가 아니다,
이렇게 해야 되겠죠.

00:09:11.576 --> 00:09:16.556
그런데 지금 가가 여기도
있단 말이에요.

00:09:16.656 --> 00:09:18.286
도대체 이거는 뭐야? 주어예요?

00:09:18.386 --> 00:09:23.781
이렇게 물어본다면, 문장 성분을
공부할 때 다뤄야 되는 내용인데.

00:09:23.881 --> 00:09:27.885
보어에 대한 정보를 줄게요.

00:09:27.985 --> 00:09:29.831
일곱 개의 문장 성분이 있습니다.

00:09:29.931 --> 00:09:32.684
주어, 목적어, 서술어 익히
들어서 아는 부분이고요.

00:09:32.784 --> 00:09:35.151
그다음에 관형어 있고 부사어
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.

00:09:35.251 --> 00:09:37.570
거기에 독립어라는 게 추가가 되고

00:09:37.670 --> 00:09:39.637
또 한 가지가 바로 보어인데요.

00:09:39.737 --> 00:09:42.937
보어라는 것은 이렇게
정의가 내려집니다.

00:09:43.037 --> 00:09:47.591
되다, 아니다.

00:09:47.691 --> 00:09:59.618
이 두 단어 앞에서 보충하는
말을 보어라고 불러준다고요.

00:09:59.718 --> 00:10:01.873
그러니까 이게 시간이
지나면 오해를 해.

00:10:01.973 --> 00:10:04.669
그래서 막 보어가 뭐니? 이렇게
 물어보면 되다랑 아니에요.

00:10:04.769 --> 00:10:06.837
이렇게 이야기하는
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.

00:10:06.937 --> 00:10:08.945
이게 지금 기본적인
거를 놓쳐서 그런데

00:10:09.045 --> 00:10:13.658
되다, 아니다는 보어를 찾기 위해서
중요한 힌트가 되기는 하지만

00:10:13.758 --> 00:10:15.397
개네가 보어는 아니에요.

00:10:15.497 --> 00:10:17.547
되다, 아니다는
서술어로 쓰이는 거죠.

00:10:17.647 --> 00:10:24.455
가령 나는 범인이 아니다.

00:10:24.555 --> 00:10:31.981
나는 대학생이 되었다.

00:10:37.127 --> 00:10:40.578
이런 문장에서 지금 각각
서술어는 아니다, 되었다.

00:10:40.678 --> 00:10:45.820
마침표 딱 찍어주고
애네들이 서술어잖아요.

00:10:45.920 --> 00:10:50.474
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주어는 뭐니까?
호응하는 주어.

00:10:50.574 --> 00:10:53.327
누가 아니죠? 내가 아닌 거예요.

00:10:53.427 --> 00:10:55.099
누가 된 거죠? 내가 된 거예요.

00:10:55.199 --> 00:11:00.157
그러니까 여기서 이놈들이
각각 주어로 잡힌 겁니다.

00:11:00.257 --> 00:11:04.079
그러면 이 문장에서 나는 아니다,
아니면 나는 되었다.

00:11:04.179 --> 00:11:05.896
이렇게만 하면 뭔가 허전해.

00:11:05.996 --> 00:11:09.701
그래서 반드시 보충하는 말이
중간에 끼어들어와야 되는데

00:11:09.801 --> 00:11:13.505
이게 지금 중간에 끼어든
보어라는 거예요.

00:11:13.605 --> 00:11:16.783
그래서 이 되다나 아니다
앞에 주어 말고

00:11:16.883 --> 00:11:20.476
중간에 끼는 보충해주는 말을
보어라고 한다면 봅시다.

00:11:20.576 --> 00:11:22.959
이 범인이, 대학생이.

00:11:23.059 --> 00:11:25.432
여기서 조사로 쓰인 게 바로 이인데

00:11:25.532 --> 00:11:27.528
이때 이를 뭐라고 불러줘야 된다?

00:11:27.628 --> 00:11:31.475
보어를 만들어주는 조사니까
보격 조사라고 불러줍니다.

00:11:31.575 --> 00:11:34.452
똑같아요, 지금 보면

00:11:34.552 --> 00:11:36.867
아니다라는 서술어가 나왔잖아요.

00:11:36.967 --> 00:11:41.791
그러면 이 서술어에 해당하는
주어는 이것은 아니대요.

00:11:41.891 --> 00:11:44.623
그런데 이것은 뭐가
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까?

00:11:44.723 --> 00:11:48.064
나비가 아니다, 보충해주는
말로 튀어나온 거죠.

00:11:48.164 --> 00:11:54.540
따라서 이때의 가는 보격
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

00:12:02.940 --> 00:12:07.384
그런데 지금 보면 애네들은

이런 상황이 돼요.

00:12:07.484 --> 00:12:11.002

체언에 주격 조사를
더하면 주어입니다.

00:12:11.102 --> 00:12:12.697

목적격 조사 더하면 목적어 되고요.

00:12:12.797 --> 00:12:13.963

관형격 조사 더하면 관형어.

00:12:14.063 --> 00:12:15.106

부사격, 부사어.

00:12:15.206 --> 00:12:16.841

서술격 조사 더하면 서술어 되고

00:12:16.941 --> 00:12:19.177

보격 조사 붙이니까 보어가 됐는데.

00:12:19.277 --> 00:12:21.024

마지막 거는 용어가 좀 달라요.

00:12:21.124 --> 00:12:23.232

이거 노래잖아요, 동요.

00:12:23.332 --> 00:12:26.878

(노래) 나비야 나비야
이리 날아 오너라

00:12:26.978 --> 00:12:33.652

지금 보면 쉼표를 찍어주면서
애가 이리 날아 오너라.

00:12:33.752 --> 00:12:36.075

이 문장과 독립되어서
쓰였단 말이에요.

00:12:36.175 --> 00:12:39.943

그래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거를
독립어라는 문장 성분으로 잡아주는데.

00:12:40.043 --> 00:12:43.547

그렇다고 해서 애네들은 독립격
조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.

00:12:43.647 --> 00:12:47.443

독립어를 만들어줄 수 있는
조사는 딱 부르는 말인

00:12:47.543 --> 00:12:52.501

부를 호 자라는 한자를 써서
호격 조사라고 써주게 됩니다.

00:12:52.601 --> 00:12:55.934

그래서 이때 야,
이렇게 부르는 말.

00:12:56.034 --> 00:13:00.145

부를 호 자 해서 호격

조사라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.

00:13:00.245 --> 00:13:04.347

여기에 지금 야 같은
거를 잡았어요.

00:13:04.447 --> 00:13:08.045

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곱
가지가 격조사의 종류입니다.

00:13:08.145 --> 00:13:09.432

외울 수 있겠죠?

00:13:09.532 --> 00:13:14.000

주격 조사, 목적격 조사, 서술격
조사, 관형격 조사, 부사격 조사

00:13:14.100 --> 00:13:17.659

그다음에 보격 조사, 호격
조사 이렇게 일곱 개.

00:13:17.759 --> 00:13:19.416

이렇게 종류가 딱 있는데.

00:13:19.516 --> 00:13:24.128

이제 애네들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
추가적인 것들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3:24.228 --> 00:13:28.931

먼저 주격 조사에 뭐가 더 있을까?

00:13:29.031 --> 00:13:32.756

주격 조사는 일단 이, 그리고 가.

00:13:32.856 --> 00:13:33.885

다시요.

00:13:33.985 --> 00:13:35.958

주격 조사는 이 그리고 가.

00:13:36.058 --> 00:13:39.381

이 둘은 우리가 나중에
형태소를 공부할 텐데,

00:13:39.481 --> 00:13:41.747

형태소를 앞에서 잠깐
언급은 했었지만

00:13:41.847 --> 00:13:44.439

형태소에 대한 개념을 아주
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때

00:13:44.539 --> 00:13:46.984

이형태라는 개념을 설명드릴 거예요.

00:13:47.084 --> 00:13:52.733

그 이형태라는 개념은
살짝만 알려드리면,

00:13:52.833 --> 00:14:00.011

다들 이 자를 사용해서

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.

00:14:00.111 --> 00:14:20.159
기능은 같고 형태가 다른 형태소를
이형태를 불러주게 돼요.

00:14:20.259 --> 00:14:24.241
여러분, 이나 가 같은
경우에는 똑같은 거예요.

00:14:24.341 --> 00:14:28.643
보세요.

00:14:28.743 --> 00:14:34.959
빵, 과자 맛있다.

00:14:35.059 --> 00:14:38.123
맛 있다가의 주어로 애네 둘
쓸 건데 뭐 쓸 겁니까?

00:14:38.223 --> 00:14:39.861
빵이 맛 있다.

00:14:39.961 --> 00:14:41.517
과자가 맛있다.

00:14:41.617 --> 00:14:43.331
왜 이렇게 두 가지를
나눠 쓰는 겁니까?

00:14:43.431 --> 00:14:45.110
이거 어떤 원리이죠?

00:14:45.210 --> 00:14:48.651
똑같은 주격 조사이지만 앞에
받침이 있으면 이를 쓰고

00:14:48.751 --> 00:14:51.102
받침이 없으면 가를 쓰는
그러한 구성이거든요.

00:14:51.202 --> 00:14:55.547
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이 이러한
형태소 경계가 꽤 많은 편입니다.

00:14:55.647 --> 00:14:59.259
그래서 일단 받침이 있고
없고에 따라 나뉘어지는,

00:14:59.359 --> 00:15:00.893
그러나 기능은 동일하잖아요.

00:15:00.993 --> 00:15:02.921
그래서 이런 거를 이형태
관계라고 하는데.

00:15:03.021 --> 00:15:05.381
기본적으로 이, 가가
여기에 해당합니다.

00:15:05.481 --> 00:15:08.052

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?

00:15:08.152 --> 00:15:11.684
처음에 문법을 학습할 때 모르는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.

00:15:11.784 --> 00:15:13.403
애들아 주격 조사 뭐가 있니?

00:15:13.503 --> 00:15:15.412
이러면 은, 는, 이 가요!

00:15:15.512 --> 00:15:16.807
그러면 틀린 거예요.

00:15:16.907 --> 00:15:19.767
왜냐하면 은, 는, 이, 가에서
이, 가는 맞지만

00:15:19.867 --> 00:15:24.330
은, 는은 격조사가 아니라 바로 보조사에
해당하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
00:15:24.430 --> 00:15:26.434
그래서 은, 는 이제
머릿속에 지우셔야 돼요.

00:15:26.534 --> 00:15:31.737
주격 조사는 이, 가 그리고
께서, 그리고 에서,

00:15:31.837 --> 00:15:34.534
그리고 서까지 같 수 있습니다.

00:15:34.634 --> 00:15:39.800
이, 가,께서, 그리고 에서,

00:15:39.900 --> 00:15:44.562
그리고 국립국어원 기준으로는
서라는 것도 넣어주기는 하는데

00:15:44.662 --> 00:15:46.100
아마 출제하지는 않을 거예요.

00:15:46.200 --> 00:15:48.849
선생님이 따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
저거는 출제하지 않습니다.

00:15:48.949 --> 00:15:51.817
각각을 설명드리면 일단
이, 가 같은 경우에는

00:15:51.917 --> 00:15:54.813
주어 기능이라는 것만
알려주고 끝나는 건데.

00:15:54.913 --> 00:16:00.312
께서, 예를 들면 친구가
나에게 선물을 했다.

00:16:00.412 --> 00:16:05.399

이 문장에서 친구 자리에
아버지로 바꿀게요.

00:16:05.499 --> 00:16:08.096
아버지가 나에게 선물을 했다.

00:16:08.196 --> 00:16:10.959
이때 뭐 문장이 문제가
되는 거는 아니에요.

00:16:11.059 --> 00:16:14.419
어법에는 맞는데 높임법을
안 썼단 말이죠.

00:16:14.519 --> 00:16:16.613
그러니까 싸가지가 없는
문장이 만들어진 겁니다.

00:16:16.713 --> 00:16:18.931
그러니까 아버지께서,
이렇게 쓰겠죠.

00:16:19.031 --> 00:16:21.550
아버지께서 나에게 선물을
하셨다, 이런 식으로.

00:16:21.650 --> 00:16:24.724
그래서 주어가 높여야 될
대상이라면 께서를 쓰는 거죠.

00:16:24.824 --> 00:16:31.801
그래서 높임의 주격 조사로
께서 존재합니다.

00:16:31.901 --> 00:16:34.947
다음 신경 써야 될 게 예서인데.

00:16:35.047 --> 00:16:36.890
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.

00:16:36.990 --> 00:16:43.917
이 예서가 부사격 조사에도
들어갈 거거든요.

00:16:44.017 --> 00:16:49.153
그러면 보격 조사 이야기해볼게요.

00:16:49.253 --> 00:16:51.954
보격 조사는 이, 가
2개밖에 없어요.

00:16:52.054 --> 00:16:54.405
이놈과 이놈.

00:16:54.505 --> 00:16:58.517
이 주격 조사 이, 가하고 보격 조사
이, 가는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?

00:16:58.617 --> 00:17:00.880
이렇게 물어보면 이미 해결이 됐죠.

00:17:00.980 --> 00:17:04.161

주격 조사 이, 가의
경우에는 되다, 아니다를

00:17:04.261 --> 00:17:08.247

보충해주는 말로 쓰이는 게 아닌
나머지는 전부 다 주격 조사겠지만

00:17:08.347 --> 00:17:10.994

만약에 이 되다, 아니다가
서술어에 나와 있고

00:17:11.094 --> 00:17:12.990

거기에 해당하는 주어도 있는데

00:17:13.090 --> 00:17:15.574

뭐가 중간에 끼어 있고
거기에 이, 가를 썼으면

00:17:15.674 --> 00:17:16.856

그게 보어인 거예요.

00:17:16.956 --> 00:17:21.085

그러니까 이거는 그 문장의 구조,
위치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여서

00:17:21.185 --> 00:17:23.792

형태가 동일하다고 헛갈릴
일은 없단 말이죠.

00:17:23.892 --> 00:17:27.227

그런데 이 예서랑 이 예서는
어떻게 구분을 할 것이냐.

00:17:27.327 --> 00:17:28.887

보겠습니다.

00:17:28.987 --> 00:17:31.741

예문을 보도록 할게요.

00:17:34.326 --> 00:17:45.956

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나눠줬다.

00:17:54.234 --> 00:18:06.164

그다음에 우리는 학교에서 공부한다.

00:18:06.264 --> 00:18:08.274

기능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?

00:18:08.374 --> 00:18:12.194

문장 성분을 판단할 때에는
항상 핵심, 서술어예요.

00:18:12.294 --> 00:18:14.372

뭐라고요? 서술어.

00:18:14.472 --> 00:18:18.393

문장 성분을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
서술어에서 앞으로 올라옵니다.

00:18:18.493 --> 00:18:20.444

이 문장에서 서술어는 뭐다?

00:18:20.544 --> 00:18:22.604

나눠준다, 이게 서술어.

00:18:22.704 --> 00:18:24.676

밑에서도 공부하다, 서술어입니다.

00:18:24.776 --> 00:18:26.826

누가 하고 있는지 따져볼게요.

00:18:26.926 --> 00:18:30.289

공부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?

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.

00:18:30.389 --> 00:18:33.212

애가 지금 주어의 역할을

하고 있는 건데.

00:18:33.312 --> 00:18:37.111

그러면 이 학교에서는

어떤 기능이다?

00:18:37.211 --> 00:18:40.500

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.

00:18:40.600 --> 00:18:42.158

따라서 애는 기능이 뭐다?

00:18:42.258 --> 00:18:48.563

공부하다, 라는 동사를

꾸며주는 용언을 꾸며주고 있는

00:18:48.663 --> 00:18:51.541

부사어가 되는 거죠.

00:18:51.641 --> 00:18:53.351

다시, 부사가 아니예요.

00:18:53.451 --> 00:18:54.918

부사어가 되는 겁니다.

00:18:55.018 --> 00:18:57.440

이런 단어가 사전에

그대로 나오지는,

00:18:57.540 --> 00:19:01.543

학교에서를 그대로 찾으면 부사,

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.

00:19:01.643 --> 00:19:05.510

그러니까 부사는 아니고

명사 더하기 조사인데

00:19:05.610 --> 00:19:08.681

이 조사가 무슨 조사다? 부사격

조사에 해당하는 거예요.

00:19:08.781 --> 00:19:12.279

그래서 애는 지금 부사어예요.

00:19:12.379 --> 00:19:14.669
따라서 이놈은 부사격 조사예요.

00:19:14.769 --> 00:19:17.259
그런데 위에 거 한번 보겠습니다.

00:19:17.359 --> 00:19:20.522
나눠줬어요, 누가 나눠줬죠?

00:19:20.622 --> 00:19:22.966
나눠준 주체가 누구죠?

00:19:23.066 --> 00:19:25.008
학교가 나눠준 거예요.

00:19:25.108 --> 00:19:26.466
학교에서 나눠준 거예요.

00:19:26.566 --> 00:19:29.878
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,
라는 공간에서

00:19:29.978 --> 00:19:32.382
선생님께서, 라는 주어가
있는 게 아니잖아요.

00:19:32.482 --> 00:19:34.889
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
이렇게 문장이 나오면,

00:19:34.989 --> 00:19:38.208
우리 이렇게 쓰잖아요,
학교에서 나눠줬어.

00:19:38.308 --> 00:19:41.290
학교가 사람도 아닌데 나눠주는
것처럼 표현을 해놓은 거죠.

00:19:41.390 --> 00:19:44.388
가령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
긴급 발표를 했다.

00:19:44.488 --> 00:19:46.267
이러면 긴급 발표 누가 한 거예요?

00:19:46.367 --> 00:19:47.716
청와대에서 한 거예요.

00:19:47.816 --> 00:19:52.373
청와대라는 게 어떤 공간적인
측면으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

00:19:52.473 --> 00:19:55.654
행위 주체적인 측면으로도
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.

00:19:55.754 --> 00:19:58.513
예를 들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
긴급 발표를 했다.

00:19:58.613 --> 00:20:01.217

그러면 긴급 발표의
주체는 대통령입니다.

00:20:01.317 --> 00:20:05.693
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공간을
이야기하는 부사어로 쓰인 거예요.

00:20:05.793 --> 00:20:07.583
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?

00:20:07.683 --> 00:20:10.814
이렇게 비슷한 거로 한번 가볼게요.

00:20:10.914 --> 00:20:24.968
평창에서 올림픽이
개최된다, 라는 문장하고

00:20:25.068 --> 00:20:36.516
평창에서 올림픽을 개최한다.

00:20:36.616 --> 00:20:38.980
이게 구조가 다른
거예요, 잘 봅시다.

00:20:39.080 --> 00:20:44.372
지금 개최된다, 개최한다가
동일하게 서술어예요.

00:20:44.472 --> 00:20:46.610
윗문장에서는 주어가 뭐죠?

00:20:46.710 --> 00:20:49.247
뭐가 개최되죠?

00:20:49.347 --> 00:20:51.701
올림픽이 개최가 돼요.

00:20:51.801 --> 00:20:53.951
어디에서요? 평창에서요.

00:20:54.051 --> 00:20:57.696
그러면 평창에서, 이거는
구조가 어떻게 된다?

00:20:57.796 --> 00:20:59.592
부사어가 됩니다.

00:20:59.692 --> 00:21:01.992
따라서 이 에서는 부사격 조사예요.

00:21:02.092 --> 00:21:04.283
그런데 밑에 같은
경우에는 주어가 뭐죠?

00:21:04.383 --> 00:21:07.873
개최한다, 어디에서 개최하죠?
누가 개최하죠?

00:21:07.973 --> 00:21:09.690
평창에서 개최하는 거죠.

00:21:09.790 --> 00:21:16.359

애는 목적어잖아요, 올림픽을
이거는 목적어니까.

00:21:16.459 --> 00:21:20.694

뭐를 개최하는지에 대한
목적 대상이 나왔고요.

00:21:20.794 --> 00:21:26.153

그러면 애가 바로
주어가 되는 거죠.

00:21:26.253 --> 00:21:27.462

이해되십니까?

00:21:27.562 --> 00:21:29.426

이제 어떤 경우인지 알겠죠?

00:21:29.526 --> 00:21:32.417

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라면

00:21:32.517 --> 00:21:35.705

이거는 기관, 또는
단체가 주어일 때예요.

00:21:35.805 --> 00:21:42.077

그래서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
단체가 주어라 되어줄 때는

00:21:42.177 --> 00:21:45.925

이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이는
거라고 해서, 이제 외웁니다.

00:21:46.025 --> 00:21:47.512

주격 조사는 뭐가 있다?

00:21:47.612 --> 00:21:51.942

이, 가, 께서, 에서

00:21:52.042 --> 00:21:55.042

께서 높임이고 에서는
단체나 기관일 때.

00:21:55.142 --> 00:21:56.659

이렇게 외워주면 되고.

00:21:56.759 --> 00:22:00.816

서의 경우에는 사전상에는
등재가 되어 있는데

00:22:00.916 --> 00:22:06.353

재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예를 들면

00:22:06.453 --> 00:22:11.286

혼자서 밥을 먹었다.

00:22:11.386 --> 00:22:14.869

둘이서 밥을 먹었다.

00:22:14.969 --> 00:22:22.051

이때 서가 먹었다의 주어라 되는

존재를 이야기해주는 주격 조사다.

00:22:22.151 --> 00:22:25.392

이렇게 국립국어원에서는
인정을 해준 상태입니다.

00:22:25.492 --> 00:22:28.329

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
사실 논란 거리가 아직 있기 때문에

00:22:28.429 --> 00:22:31.397

학교에서 굳이 이야기해주지
않는다면 외울 거까지는 없어요.

00:22:31.497 --> 00:22:35.154

선생님께서 이야기해주면 그때
인정하면 되는 거고요.

00:22:35.254 --> 00:22:36.514

학교 내신의 경우에는.

00:22:36.614 --> 00:22:39.196

어쨌든 이, 가, 께서,
에서만 딱 정리해도 좋아요.

00:22:39.296 --> 00:22:41.709

그다음 목적격 조사 가겠습니다.

00:22:41.809 --> 00:22:47.033

목적격 조사는 딱
이거밖에 없습니다.

00:22:47.133 --> 00:22:48.250

을, 를.

00:22:48.350 --> 00:22:50.235

역시 둘은 무슨 관계?
이형태 관계.

00:22:50.335 --> 00:22:53.402

받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
판단이 되는 거죠.

00:22:53.502 --> 00:22:55.425

그다음에 나비를,
이렇게 써놨잖아요.

00:22:55.525 --> 00:22:57.965

그런데 뱀을, 이렇게
나와야 되는 거죠.

00:22:58.065 --> 00:23:00.439

그다음에 관형격 조사는 의, 끝.

00:23:00.539 --> 00:23:02.592

다음 서술격 조사 가볼게요.

00:23:02.692 --> 00:23:04.761

서술격 조사 이다, 끝.

00:23:04.861 --> 00:23:08.944

단 주의하셔야죠, 이것도
좀 주의하셔야 되는데.

00:23:09.044 --> 00:23:12.912
왜 주의해야 된다?

00:23:13.012 --> 00:23:17.622
활용이 가능하잖아요.

00:23:17.722 --> 00:23:23.192
우리가 품사를 나누면서
가변어에 속하는 게 용언.

00:23:23.292 --> 00:23:25.890
동사와 형용사와 더불어서
뭐가 있었습니까?

00:23:25.990 --> 00:23:28.378
바로 서술격 조사의 이다,
이거였다는 거잖아요.

00:23:28.478 --> 00:23:32.304
그래서 이런 구성을 잘
봐야 되는데 볼게요.

00:23:32.404 --> 00:23:43.966
나는 법관인 아버지를 존경한다.

00:23:44.066 --> 00:23:57.431
네가 아이언맨이면 나는 헐크야.

00:23:57.531 --> 00:23:59.182
이렇게 애들끼리 싸웠어.

00:23:59.282 --> 00:24:00.552
그러면 보세요.

00:24:00.652 --> 00:24:03.666
여기서 이런 거 따져보는 거예요.

00:24:03.766 --> 00:24:07.662
이게 지금 결국 서술격
조사 이다예요.

00:24:07.762 --> 00:24:11.778
이거를 어떻게 발견할 거냐면
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

00:24:11.878 --> 00:24:18.143
법관인 같은 경우에는 법관이라는
명사에 인이 더해진 게 아니라

00:24:18.243 --> 00:24:20.977
이다, 라는 서술격 조사에 나,

00:24:21.077 --> 00:24:25.423
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아버지를
꾸미게끔 만드는 거죠.

00:24:25.523 --> 00:24:30.060
이 구조를 똑같이 용언에다가도

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.

00:24:30.160 --> 00:24:34.981

애는 지금 이다, 라는 서술격
조사에서 어간은 어디까지라고 했어요?

00:24:35.081 --> 00:24:37.661

다를 제거하면 어간이
나온다고 했었죠.

00:24:37.761 --> 00:24:39.849

이게 지금 어간 부분이야.

00:24:39.949 --> 00:24:42.160

애가 지금 어미고요.

00:24:42.260 --> 00:24:46.940

관형어를 만들어줄 수 있는
관형사형 전성 어미를

00:24:47.040 --> 00:24:48.401

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해드릴게요.

00:24:48.501 --> 00:24:51.477

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
다른 것도 한번 가볼게요.

00:24:51.577 --> 00:24:57.365

집을 떠난 아버지, 회사에 간
아버지, 이렇게 간다고 봅시다.

00:24:57.465 --> 00:24:59.550

그러면 회사에 간
아버지를 만들기 위해서

00:24:59.650 --> 00:25:05.620

회사에 가다 할 때 가에 더하기 ㄴ
더해서 아버지를 꾸미는 거잖아요.

00:25:05.812 --> 00:25:08.242

그러니까 이게 지금
같은 어미 맞아?

00:25:08.342 --> 00:25:10.883

이다 맞아?
이런 거를 생각하려면,

00:25:10.983 --> 00:25:15.840

다른 동사나 형용사, 용언의
어간이 받침이 없는 거로.

00:25:15.940 --> 00:25:19.403

예를 들면 오다, 가다,
자다 이런 거로 표현하면

00:25:19.503 --> 00:25:22.780

이게 지금 ㄴ이 같은
의미를 가지고 있는

00:25:22.880 --> 00:25:24.995

즉 꾸며줄 수 있게

하는 어미가 맞구나.

00:25:25.095 --> 00:25:27.212
그러면 이거는 서술격 조사 이다이지

00:25:27.312 --> 00:25:29.315
인이 하나짜리가 아니구나.

00:25:29.415 --> 00:25:32.167
이거를 꼬집어낼 수 있어요.

00:25:32.267 --> 00:25:35.879
또 마찬가지로.

00:25:35.979 --> 00:25:40.959
아이언맨+이+면
이렇게 나눠줘야지

00:25:41.059 --> 00:25:43.033
이면을 하나로 볼 수
없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25:43.133 --> 00:25:44.637
서술격 조사 이다예요.

00:25:44.737 --> 00:25:47.107
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
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다?

00:25:47.207 --> 00:25:49.200
어간이라고 봐줘야
된다는 이야기인데,

00:25:49.300 --> 00:25:51.030
여기가 지금 어간이잖아요?

00:25:51.130 --> 00:25:54.474
그러면 이렇게 나눠줄 수
있는 이유는 뭐다?

00:25:54.574 --> 00:25:57.884
네가 아이언맨이면 나는 헐크야.

00:25:57.984 --> 00:26:00.327
그러면 내가 가면 나는
여기 있을 거야.

00:26:00.427 --> 00:26:03.037
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
때 뜻이 비슷한 거.

00:26:03.137 --> 00:26:06.465
~하면, 이거는 앞의
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

00:26:06.565 --> 00:26:11.117
그다음 일이 벌어지게 하기 위해서
연결해주는, 역시나 어미예요.

00:26:11.217 --> 00:26:15.227
그러니까 이런 거로 판단했을 때

다 이다에서 활용된 거구나.

00:26:15.327 --> 00:26:16.749

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

00:26:16.849 --> 00:26:19.517

이거를 하나짜리야, 이렇게
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.

00:26:19.617 --> 00:26:21.447

이런 이다인 거를 발견하라는 거.

00:26:21.547 --> 00:26:23.024

이게 초점이죠.

00:26:23.124 --> 00:26:25.721

그래서 서술격 조사 이다는
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

00:26:25.821 --> 00:26:29.820

다양한 모습에서 이다를 딱 끄집어내는
것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.

00:26:29.920 --> 00:26:32.759

보격 조사 이미
이, 가 해서 끝났어요.

00:26:32.859 --> 00:26:38.805

호격 조사로는 역시 이형태
관계로 아, 야가 있어요.

00:26:38.905 --> 00:26:42.767

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받침이
없으니까 야를 쓰는 거고.

00:26:42.867 --> 00:26:45.490

만약에 받침이 있다.

00:26:45.590 --> 00:26:47.570

뱀을 부르고 싶어요,
그러면 뱀야가 아니죠.

00:26:47.670 --> 00:26:49.840

어떻게 합니까? 뱀아, 뱀아
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겠죠.

00:26:49.940 --> 00:26:53.503

그래서 아나 야는 받침이
있고 없고에 판단되는

00:26:53.603 --> 00:26:56.221

호격 조사가 되고
이형태 관계가 되고.

00:26:56.321 --> 00:26:58.601

여기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,

00:26:58.701 --> 00:27:01.303

높임을 나타낼 때의 단어가 있어요.

00:27:01.403 --> 00:27:06.644

예를 들면 아버지야,
이럴 수 없잖아요.

00:27:06.744 --> 00:27:08.839
아버지만 불러도 되겠지만

00:27:08.939 --> 00:27:12.172
아버지 뒤에 뭔가를 붙이려고
한다면 아버지여, 가야 돼요.

00:27:12.272 --> 00:27:15.162
그래서 (이)여를
붙이면 되겠습니다.

00:27:15.262 --> 00:27:18.221
이는 올 수도 있고
안 올 수도 있어요.

00:27:18.321 --> 00:27:22.060
신이여, 받침이 있으면
이여 오는 거고.

00:27:22.160 --> 00:27:25.203
아버지여, 아버지에 받침 없잖아요?

00:27:25.303 --> 00:27:27.177
그래서 그럴 때 여가
오고, 이런 구성이죠.

00:27:27.277 --> 00:27:30.731
그래서 이, 야 높임의 (이)여까지
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.

00:27:30.831 --> 00:27:34.276
그러면 지금 격조사에서,
잘 보세요.

00:27:34.376 --> 00:27:38.404
격조사에서 추가적인 것까지
정리를 한 게 다 뭐였느냐.

00:27:38.504 --> 00:27:48.634
우선 부사격 조사를 뺀
나머지는 다 끝낸 거예요.

00:27:48.734 --> 00:27:50.993
화면 이쪽으로.

00:27:51.093 --> 00:27:56.227
주격 조사 뭐 있었죠?
주어 만드는 거.

00:27:56.327 --> 00:28:02.384
이, 가, 께서, 그리고
단체나 기관 주어 에서.

00:28:02.484 --> 00:28:03.604
이렇게 붙는 거죠.

00:28:03.704 --> 00:28:05.504
목적격 조사 뭐 있었죠?

00:28:05.604 --> 00:28:08.816
을, 그리고 를 간단합니다.

00:28:08.916 --> 00:28:10.656
관형격 조사 뭐 있어요?

00:28:10.756 --> 00:28:14.274
관형어 만들어주는 거
의, 하나밖에 없습니다.

00:28:14.374 --> 00:28:16.048
그다음 보격 조사.

00:28:16.148 --> 00:28:18.574
되다, 아니다 앞에 보충해주는
말 뭐 있습니까?

00:28:18.674 --> 00:28:20.329
이, 가.

00:28:20.429 --> 00:28:22.236
그다음에 호격 조사 뭐 있습니까?

00:28:22.336 --> 00:28:28.453
무르는 거, ~아, ~야, 그리고
높임의 (이)여까지 있습니다.

00:28:28.553 --> 00:28:31.745
그다음에 서술격 조사 뭐 있다고요?
이다.

00:28:31.845 --> 00:28:34.990
이다, 활용되는 거 그것만
주의하면 되는 거죠.

00:28:35.090 --> 00:28:36.137
끝났어요.

00:28:36.237 --> 00:28:40.059
지금 뭐를 빼고 다 정리한
거냐면 부사격 조사인데.

00:28:40.159 --> 00:28:43.173
문제는 격조사 양이
많다고 했잖아요.

00:28:43.273 --> 00:28:47.614
뭐가 많냐, 부사격 조사의
양이 정말 많습니다.

00:28:47.714 --> 00:28:49.764
그러나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.

00:28:49.864 --> 00:28:54.666
그래야 애가 붙는 순간
애 부사어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.

00:28:54.766 --> 00:28:59.668
그래서 부사격 조사를 정리합니다.

00:28:59.768 --> 00:29:02.645
유형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.

00:29:02.745 --> 00:29:05.814
첫 번째, 부사격 조사의 유형은

00:29:05.914 --> 00:29:12.209
일단 방향성하고 처소를
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어요.

00:29:12.309 --> 00:29:15.647
방향과 처소.

00:29:15.747 --> 00:29:19.943
일단 가고 오고 하는 동작과
관련될 수밖에 없는 거죠.

00:29:20.043 --> 00:29:21.960
그래서 가다 같은 거를
생각해보겠습니다.

00:29:22.060 --> 00:29:24.167
가다를 생각하면,

00:29:24.267 --> 00:29:27.656
나는 가다, 문장이
완성되지 않아요.

00:29:27.756 --> 00:29:32.202
나는 가다에 어디
어디가 필요한 거죠.

00:29:32.302 --> 00:29:34.698
그래서 내가 학교를,
이렇게 써도 되겠지만

00:29:34.798 --> 00:29:36.257
그때는 목적격 조사를 붙인 거고.

00:29:36.357 --> 00:29:38.487
목적격 조사 말고 부사격 조사로.

00:29:38.587 --> 00:29:42.012
학교에, 이게 필요합니다.

00:29:42.112 --> 00:29:44.570
아주 기본적인 거죠, 학교에 가다.

00:29:44.670 --> 00:29:47.603
또는 뒤를 쓸 수 있죠?

00:29:47.703 --> 00:29:50.195
학교로 가다, 이렇게 쓸 수 있죠.

00:29:50.295 --> 00:29:53.469
그런데 이 로 같은 경우에는

00:29:53.569 --> 00:29:57.624
학교 뒤에는 받침이 없기
때문에 로를 썼단 말이에요.

00:29:57.724 --> 00:30:00.737

그런데 만약에 광장과 같은
단어, 받침이 있는.

00:30:00.837 --> 00:30:06.490

학교로, 이렇게 써야 된다면

00:30:06.590 --> 00:30:10.246

운동장 같이 받침이 있는 거.

00:30:10.346 --> 00:30:12.553

운동자로 가다, 안 되잖아요.
어떻게 씁니까?

00:30:12.653 --> 00:30:15.604

운동장으로 가다,
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.

00:30:15.704 --> 00:30:21.413

이때 여기에 있는 로와 으로 모두 다
부사격 조사에 해당하는 겁니다.

00:30:21.513 --> 00:30:23.661

그런데 저는 이렇게 으로.

00:30:23.761 --> 00:30:26.250

어차피 2개인데 하나처럼 쓸게요.

00:30:26.350 --> 00:30:27.896

로나 으로나 똑같은 거예요.

00:30:27.996 --> 00:30:29.887

받침이 있고 없고에
따라 판단되는 겁니다.

00:30:29.987 --> 00:30:31.950

으로.

00:30:32.050 --> 00:30:35.684

그다음요.

00:30:35.784 --> 00:30:38.637

출발점이 있잖아요.

00:30:38.737 --> 00:30:44.805

그래서 처소, 어디
어디에서 잠을 자다.

00:30:44.905 --> 00:30:51.031

나는 ~에서 잠을 자다,
~에서 밥을 먹다, ~으로 가다.

00:30:51.131 --> 00:30:54.862

뭔지 알겠습니까, 대충?

00:30:54.962 --> 00:30:59.084

어디에서, 예서가 됩니다.

00:30:59.184 --> 00:31:00.785

정리 됐어요.

00:31:00.885 --> 00:31:07.074
물론 예, 이놈이 방향, 처소의 뜻만
가지고 있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.

00:31:07.174 --> 00:31:10.683
사전에 예, 이 뜻을
찾으면 굉장히 많습니다.

00:31:10.783 --> 00:31:14.768
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사격
조사의 종류를 공부하고 싶은 거니까

00:31:14.868 --> 00:31:17.960
종류를 구분할 때에는 일단
유형화해야 되거든요.

00:31:18.060 --> 00:31:20.395
그래서 첫 번째, 가장
기본적인 단어들.

00:31:20.495 --> 00:31:23.715
어디에, 어디로,
어디에서 이렇게 묶어서

00:31:23.815 --> 00:31:27.546
처소, 공간과 그다음에
방향성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.

00:31:27.646 --> 00:31:29.379
그래서 어디에서 밥을 먹었다.

00:31:29.479 --> 00:31:32.608
어디에서 공간에서, 그다음에
어디로 갔다, 어디에 갔다.

00:31:32.708 --> 00:31:35.151
아시겠죠? 어디에서,
어디에, 어디로.

00:31:35.251 --> 00:31:38.206
두 번째, 외우셔야 됩니다.

00:31:38.306 --> 00:31:42.400
대상이에요.

00:31:48.699 --> 00:31:51.388
선물을 줬어요.

00:31:51.488 --> 00:31:55.554
나는 선물을 했다,
그러면 뭐가 필요하죠?

00:31:55.654 --> 00:31:58.908
여자친구에게, 이렇게 나와야겠죠,

00:31:59.008 --> 00:32:00.529
에게입니다.

00:32:00.629 --> 00:32:04.717
사실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이런 거
시간 지나면 헛갈리지 않아요.

00:32:04.817 --> 00:32:06.794
너무나 기본적인 조사들이니까

00:32:06.894 --> 00:32:09.692
애네들이 부사격 조사라고
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.

00:32:09.792 --> 00:32:13.522
이제 제가 색깔을 달리해서
쓰는 것들이 보조사.

00:32:13.622 --> 00:32:16.928
이다음에 공부하게 되는
보조사랑 헷갈릴 것들이에요.

00:32:17.028 --> 00:32:18.477
색깔을 달리하겠습니다.

00:32:18.577 --> 00:32:23.076
여러분, 이 에게를 일상 생활에서

00:32:23.176 --> 00:32:26.692
평상시에 친구들이랑 대화할
때 많이 씁니까?

00:32:26.792 --> 00:32:29.968
나 친구에게 책 줬어,
이렇게 쓴다고요?

00:32:30.068 --> 00:32:32.066
안 하지 않아요?
여러분은 뭐라고 하세요?

00:32:32.166 --> 00:32:36.085
나 철수에게 관심이 있어,
이렇게 안 하죠.

00:32:36.185 --> 00:32:40.458
흥트 뭐 있어요?
지금 초성만 땀어요.

00:32:40.558 --> 00:32:43.648
철수한테.

00:32:43.748 --> 00:32:48.192
야, 철수한테 좀 오라고 좀 해봐.

00:32:48.292 --> 00:32:49.864
철수한테 이것 좀 전해줘.

00:32:49.964 --> 00:32:51.835
철수에게 전해줘, 똑같은 뜻이에요.

00:32:51.935 --> 00:32:55.406
그때 이게 구어적인 표현, 일상
생활에서 쓰는 구어적인 표현으로

00:32:55.506 --> 00:32:57.499
한테, 이 표현이 있는 거죠.

00:32:57.599 --> 00:32:59.271
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

00:32:59.371 --> 00:33:02.571
철수ㄸ르 오라고 해.

00:33:02.671 --> 00:33:08.291
철수더러 오라고 해.

00:33:08.391 --> 00:33:10.688
또 뭐 있을까요?

00:33:10.788 --> 00:33:13.213
철수ㄸ기 오라고 해.

00:33:13.313 --> 00:33:18.189
철수보고 오라고 해.

00:33:18.289 --> 00:33:22.707
떨지 않아요,
떨면 안 됩니다, 조사잖아요.

00:33:22.807 --> 00:33:27.892
무슨 이야기냐면,

00:33:27.992 --> 00:33:31.853
철수보고 오라고 해,
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.

00:33:31.953 --> 00:33:34.055
이게 지금 뜻이 어떤 거예요?

00:33:34.155 --> 00:33:36.357
철수에게 오라고 하는 조사인 건데.

00:33:36.457 --> 00:33:39.109
여러분,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?

00:33:39.209 --> 00:33:43.361
안 될 거는 없는데
뜻은 다른 거예요.

00:33:43.461 --> 00:33:45.632
이거는 철수에게 오라고
하는 게 위의 뜻이고

00:33:45.732 --> 00:33:49.387
애는 철수를 보고, 눈으로
철수 보고 오라고 해.

00:33:49.487 --> 00:33:51.865
이렇게 된 거니까 되게
어색한 느낌이 나는 거죠.

00:33:51.965 --> 00:33:55.504
쓸 수는 있어요, 그렇지만
이때는 조사는 아니에요.

00:33:55.604 --> 00:33:59.430
이거는 눈으로 보다, 라고
하는 동사의 활용형인 거고.

00:33:59.530 --> 00:34:01.116
애가 조사인 거죠.

00:34:01.216 --> 00:34:05.094
왜? 조사는 붙여서 써야죠.

00:34:05.194 --> 00:34:08.460
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

00:34:08.560 --> 00:34:12.850
우리가 지금 차근차근 9개의
품사를 공부하고 있는데

00:34:12.950 --> 00:34:15.786
그 9개의 품사는 모두
단어라고 볼 수 있잖아요.

00:34:15.886 --> 00:34:17.508
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.

00:34:17.608 --> 00:34:27.890
조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,
즉 품사가 되겠죠.

00:34:27.990 --> 00:34:34.148
떨어서 씁니다.

00:34:34.248 --> 00:34:38.041
조사만 붙여서 쓰는 거지
조사가 아니라 떨어져 썼으면

00:34:38.141 --> 00:34:40.336
다 단어는 나누어서
생각을 하셔야 돼요.

00:34:40.436 --> 00:34:42.515
그래서 지난 시간에
이야기했던 것처럼

00:34:42.615 --> 00:34:46.711
예를 들면 공부를 하다, 그러면
공부 하다 다 다른 단어이고

00:34:46.811 --> 00:34:48.887
를이 조사니까 따로 챙겨주는 건데.

00:34:48.987 --> 00:34:52.295
공부하다를 붙여서 쓰는 순간
그거는 한 단어가 되는 거죠.

00:34:52.395 --> 00:34:55.814
그러니까 조사만 빼고 나머지는
다 띄어 쓰게 되어 있어요.

00:34:55.914 --> 00:34:57.114
모든 품사는.

00:34:57.214 --> 00:34:59.695
따라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
떨어서 썼다는 이야기는

00:34:59.795 --> 00:35:00.786

애는 조사예요, 아니예요?
아니라는 겁니다.

00:35:00.886 --> 00:35:02.507

그러면 뭐로 판단한다?

00:35:02.607 --> 00:35:05.056

보다, 라는 동사의 활용형.

00:35:05.156 --> 00:35:06.513

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.

00:35:06.613 --> 00:35:08.592

서로 쓸 수는 있지만 다른 거예요.

00:35:08.692 --> 00:35:09.810

다시 돌아옵니다.

00:35:09.910 --> 00:35:14.575

누구 누구에게, 누구 누구한테,
누구 누구더러, 누구 누구보고

00:35:14.675 --> 00:35:18.144

이렇게 해서 이거는 대상을
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.

00:35:18.244 --> 00:35:23.246

그다음에 세 번째.

00:35:23.346 --> 00:35:25.440

비교부사격 조사라는 게 있어요.

00:35:25.540 --> 00:35:30.048

비교하는 거야.

00:35:30.148 --> 00:35:35.246

A가 B() 똑똑해요.

00:35:35.346 --> 00:35:37.829

어떤 거 쓸까요?

00:35:37.929 --> 00:35:42.693

A가 B보다,
A가 B보다 똑똑합니다.

00:35:42.793 --> 00:35:45.989

이거는 그러면 넘는
거를 이야기하는 거죠.

00:35:46.089 --> 00:35:50.875

A가 비쳐르 똑똑합니다.

00:35:50.975 --> 00:35:55.290

그러면 뭐예요? 동급인 거.

00:35:55.390 --> 00:35:59.893

처럼 있어요.

00:35:59.993 --> 00:36:05.214

A가 Bㄱㅇ 똑똑합니다.

00:36:05.314 --> 00:36:08.071
이것도 역시 처럼과 같은 맥락인데.

00:36:08.171 --> 00:36:14.251
A가 B같이 똑똑합니다,
이게 있겠죠.

00:36:14.351 --> 00:36:21.710
그다음에 A가 Bㄱㅇ,
뭐 있을까요?

00:36:21.810 --> 00:36:26.907
A가 B만큼 똑똑합니다.

00:36:27.007 --> 00:36:28.573
다 붙여 쓰게 되는 거죠.

00:36:28.673 --> 00:36:33.092
그래서 A가 B보다, A가 B처럼,
A가 B같이, A가 B만큼.

00:36:33.192 --> 00:36:38.095
이렇게 했다면 애네들은 비교해주는
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사격 조사이고

00:36:38.195 --> 00:36:42.219
애네들이 뭐 뒤에 붙어 있다면
그놈들은 다 부사어가 되는 거.

00:36:42.319 --> 00:36:44.546
문장 성분을 부사어로
만든다는 거예요.

00:36:44.646 --> 00:36:52.970
한 가지가 사실 더 있기는
한데 이거는 안 외워도 돼요.

00:36:53.070 --> 00:36:59.065
역시나 사전상에는 하나가 더
비교부사격 개념으로 써 있는데.

00:36:59.165 --> 00:37:02.460
마따나, 이런 조사예요.

00:37:02.560 --> 00:37:07.442
여기에서 서처럼 가볍게
보시면 될 만한 놈입니다.

00:37:07.542 --> 00:37:08.870
주격 조사 서처럼.

00:37:08.970 --> 00:37:12.559
마따나, 이거는 뭐 뒤에 붙냐면
한정되어 있는 단어 뒤에나 붙어요.

00:37:12.659 --> 00:37:14.900
말마따나,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?

00:37:15.000 --> 00:37:19.427

누구 말마따나 되게 잘 생겼네.

00:37:19.527 --> 00:37:20.945
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.

00:37:21.045 --> 00:37:24.371
그래서 말처럼, 이런 뜻을
가지고 있는 말마따나.

00:37:24.471 --> 00:37:26.312
이것도 격조사로
잡아주기는 한다는 거.

00:37:26.412 --> 00:37:28.182
설마 이거를 낼 것 같지는 않아요.

00:37:28.282 --> 00:37:29.772
있는 거는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.

00:37:29.872 --> 00:37:34.177
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겁니다.

00:37:34.277 --> 00:37:40.371
이거 맞춤법에서 자주
나오는 놈인데.

00:37:45.704 --> 00:37:50.997
조금 더 쓰임은 많기는 하지만
일단 이거 있잖아요.

00:37:51.097 --> 00:37:56.401
로서와 로씨를 구분하는 거 맞춤법에서
종종 문제가 나오거든요.

00:37:56.501 --> 00:37:58.518
이거 둘 다 부사격 조사예요.

00:37:58.618 --> 00:38:01.180
로서와 로씨 모두
부사격 조사입니다.

00:38:01.280 --> 00:38:06.862
선생님으로서 열심히 가르쳐야
한다, 이거입니까?

00:38:06.962 --> 00:38:09.702
선생님으로써 열심히 가르쳐야
한다, 이거입니까?

00:38:09.802 --> 00:38:13.253
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
선생님이 도구 수단이에요,

00:38:13.353 --> 00:38:16.419
아니면 선생님이라는 자격을
이야기하는 겁니까?

00:38:16.519 --> 00:38:17.779
자격의 개념이죠.

00:38:17.879 --> 00:38:20.837

이때는 으로서를
사용하게 되어 있어요.

00:38:20.937 --> 00:38:25.432
그래서 여기서는 로서, 으로서.

00:38:25.532 --> 00:38:28.414
역시나 으는 받침이 있는
거 뒤에는 오는 거지만

00:38:28.514 --> 00:38:32.170
받침이 없는 명사 뒤에는 그냥
로서를 쓰면 되는 거죠.

00:38:32.270 --> 00:38:36.090
예를 들면 의사으로서가 아니라
의사로서,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.

00:38:36.190 --> 00:38:39.674
선생님, 이거는 ㅁ 받침이
있으니까 선생님으로서.

00:38:39.774 --> 00:38:41.385
이렇게 오는 거고요,
똑같은 겁니다.

00:38:41.485 --> 00:38:46.716
그다음 이것은 첩판에 글씨를
쓰는 물건으로 써 쓰인다.

00:38:46.816 --> 00:38:48.817
이때는 뭘니까? 수단.

00:38:48.917 --> 00:38:50.390
이거는 수단의 기능인 거죠.

00:38:50.490 --> 00:38:54.132
그래서 으로서라는 게 있습니다.

00:38:54.232 --> 00:38:56.706
사실 이렇게만 쓰이지는 않아요.

00:38:56.806 --> 00:38:59.529
그러니까 우리는 애가 부사격
조사라는 것만 알기 위한 거지.

00:38:59.629 --> 00:39:01.269
뜻이 애로만 국한된 거는 아닙니다.

00:39:01.369 --> 00:39:03.859
예를 들면 오늘로써
100일 짜가 되었다.

00:39:03.959 --> 00:39:05.506
이때 이런 거 쓰는 거고.

00:39:05.606 --> 00:39:09.075
오늘로서 시작되었다,
시작점 할 때 이런 거.

00:39:09.175 --> 00:39:10.871

이런 구분이 몇 개가
더 있기는 해요.

00:39:10.971 --> 00:39:12.672

그런데 지금은 그거를
공부하는 게 아니라

00:39:12.772 --> 00:39:14.802

우선 로서나 로써, 이게 다 뭐다?

00:39:14.902 --> 00:39:16.066

부사격 조사.

00:39:16.166 --> 00:39:18.107

붙는 순간 그냥 뭐다? 부사어.

00:39:18.207 --> 00:39:20.289

붙는 순간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.

00:39:20.389 --> 00:39:27.127

그다음에 5번, 인용이에요.

00:39:27.227 --> 00:39:30.571

인용해주는 말인데 크게
두 가지로 나뉘죠.

00:39:30.671 --> 00:39:39.055

직접 해주는 직접 인용과
간접 인용으로 나뉘니다.

00:39:39.155 --> 00:39:42.963

직접 인용은 라고가 되고요.

00:39:43.063 --> 00:39:48.474

간접 인용은 고가 되는 거죠.

00:39:48.574 --> 00:39:56.580

선비가 "이리 오너라."

00:39:56.680 --> 00:39:59.389

그다음 따옴표 하고 곧바로 붙여야 돼요,
반드시 붙여야 돼요.

00:39:59.489 --> 00:40:03.760

라고 말했다.

00:40:03.860 --> 00:40:05.844

붙여서 써야 됩니다.
왜요? 조사니까.

00:40:05.944 --> 00:40:07.379

라고는 조사니까.

00:40:07.479 --> 00:40:11.261

그래서 직접 말한 거 뒤에
인용 부사격 조사라고 해서

00:40:11.361 --> 00:40:13.137

이 라고, 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.

00:40:13.237 --> 00:40:14.951

그거를 뒤에 딱 붙여서 쓴 겁니다.

00:40:15.051 --> 00:40:19.077

이거를 만약에 간접 인용으로
풀면 따옴표가 풀리게 되죠.

00:40:19.177 --> 00:40:20.805

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

00:40:20.905 --> 00:40:29.831

선비가 이리 오라고
말했다, 이렇게 되겠죠.

00:40:29.931 --> 00:40:33.709

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
라고가 온 게 아니에요.

00:40:33.809 --> 00:40:35.071

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.

00:40:35.171 --> 00:40:39.767

오라에서 종결어미까지
나오고 그다음에 고라는

00:40:39.867 --> 00:40:42.989

인용 부사격 조사가, 간접 인용의
부사격 조사가 붙은 겁니다.

00:40:43.089 --> 00:40:45.172

따옴표가 있을 때는 라고를 쓰고

00:40:45.272 --> 00:40:47.185

없을 때는 고를 쓰게 되는 거예요.

00:40:47.285 --> 00:40:51.657

그래서 이래 라고와 고가 바로 조사가
되는 거고 부사격 조사입니다.

00:40:51.757 --> 00:40:55.967

따라서 이리 오너라."라고, 이게
말했다를 꾸며주는 부사어가 처리되고.

00:40:56.067 --> 00:40:59.213

오라고, 이게 말했다를 꾸며주는
부사어가 된다는 겁니다.

00:40:59.313 --> 00:41:00.865

붙으면 부사어니까.

00:41:00.965 --> 00:41:12.915

만약에 선비가
"이리 오너라" 하고 말했다.

00:41:13.015 --> 00:41:14.222

이렇게 쓸 수는 있거든요.

00:41:14.322 --> 00:41:19.603

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나면
이렇게 띄어서 써야 돼요.

00:41:19.703 --> 00:41:22.698

왜? 하고라는 조사는
존재하지 않아요.

00:41:22.798 --> 00:41:24.765
그러면 애는 뭐로 봐야 된다?

00:41:24.865 --> 00:41:30.516
하다, 동사의 활용형이죠.

00:41:30.616 --> 00:41:34.783
그렇기 때문에 애는
동사가 되는 거여서

00:41:34.883 --> 00:41:38.270
이 동사는 앞에 있는 거랑 또
떨어서 써줘야 되잖아요.

00:41:38.370 --> 00:41:39.824
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쓰는 거예요.

00:41:39.924 --> 00:41:43.521
그러나 라고나 고는 조사이기 때문에
무조건 붙여서 써야 되는 거죠.

00:41:43.621 --> 00:41:45.602
지금 다섯 개 했습니다.

00:41:45.702 --> 00:41:48.679
마지막 여섯 번째.

00:41:48.779 --> 00:41:50.654
동반의 부사격 조사예요.

00:41:50.754 --> 00:41:52.340
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.

00:41:52.440 --> 00:41:57.047
동반의 부사격 조사는
이렇게 기억하세요.

00:41:57.147 --> 00:42:04.723
와, 과, (이)랑,
하고까지 기억하면 됩니다.

00:42:04.823 --> 00:42:07.017
와, 과, (이)랑, 하고.

00:42:07.117 --> 00:42:11.795
와, 과 같은 경우에
서로 이형태 관계예요.

00:42:11.895 --> 00:42:14.271
그러니까 받침이 있으면
과가 필요하고

00:42:14.371 --> 00:42:16.593
받침이 없으면 와가 필요한 거죠.

00:42:16.693 --> 00:42:21.613
철수와, 그다음에 민철과
이렇게 되는 겁니다.

00:42:21.713 --> 00:42:23.843
그래서 받침 있고, 없고 문제인데.

00:42:23.943 --> 00:42:25.484
그다음에 (이)랑 같은 경우.

00:42:25.584 --> 00:42:27.812
철수하고 영화관에 갔다.

00:42:27.912 --> 00:42:30.777
철수랑 영화관에 갔다, 이런
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.

00:42:30.877 --> 00:42:32.904
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반인데

00:42:33.004 --> 00:42:40.249
여기서 애네들은 같은
형태를 취급하는

00:42:40.349 --> 00:42:42.867
접속 조사랑 구분을
잘 지어줘야 돼요.

00:42:42.967 --> 00:42:46.350
다시 정리합니다.

00:42:46.450 --> 00:42:54.003
아까 전에 조사의 종류로는 격조사와
보조사와 접속 조사가 있다고 했었죠.

00:42:54.103 --> 00:42:57.641
접속 조사를 지금 끝내버릴
텐데 이렇게 되면 돼요.

00:42:57.741 --> 00:43:11.031
접속 조사가 와, 과, (이)랑,
하고 이렇게 있어요.

00:43:11.131 --> 00:43:14.571
그러면 와, 과, (이)랑, 하고
이게 접속 조사로 봐야 돼요?

00:43:14.671 --> 00:43:16.023
아니면 부사격 조사로 봐야 돼요?

00:43:16.123 --> 00:43:17.583
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.

00:43:17.683 --> 00:43:20.059
너무 쉽습니다, 이렇게 보면 돼요.

00:43:31.218 --> 00:43:34.113
뒤에 예문 드릴 텐데
미리 알려드립니다.

00:43:34.213 --> 00:43:37.928
철수와 민수가 영화를
봤다, 이 문장이랑

00:43:38.028 --> 00:43:45.759

철수가 민수와 영화를 봤다.

00:43:45.859 --> 00:43:49.775

이 문장은 어차피 문맥은 똑같아요.

00:43:49.875 --> 00:43:52.832

그런데 달라진다는 겁니다,
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

00:43:52.932 --> 00:43:55.184

지금 영화를 본 주체가
2명이거든요.

00:43:55.284 --> 00:43:58.788

철수 A, 민수 B라고 봅시다.

00:43:58.888 --> 00:44:02.133

와, 과의 위치를 판단해보면
위에 거 볼게요.

00:44:02.233 --> 00:44:05.957

철수와, 이게 여기에 와 있죠.

00:44:06.057 --> 00:44:07.476

A, B 사이에 와 있죠.

00:44:07.576 --> 00:44:10.345

그러면 단어를
접속시켜주는 거기 때문에

00:44:10.445 --> 00:44:13.763

이거면 접속 조사라고
해주는 거예요.

00:44:13.863 --> 00:44:17.978

그런데 애는 철수가
민수와 영화를 봤다.

00:44:18.078 --> 00:44:21.134

그러면서 와가 빠져 있어요.

00:44:21.234 --> 00:44:23.696

그러니까 A, B는
바깥에 나와 있어요.

00:44:23.796 --> 00:44:28.490

그러면 애는 부사격 조사가 돼요.

00:44:28.590 --> 00:44:30.155

이해됩니까?

00:44:30.255 --> 00:44:32.437

이거 말고도 방법이
여러 가지가 있어요.

00:44:32.537 --> 00:44:34.610

가령 예를 들면 와를
생략할 수 있냐?

00:44:34.710 --> 00:44:36.458

이 자리를 생략할 수 있냐.

00:44:36.558 --> 00:44:39.039

예를 들면 철수 민수가
영화를 봤다, 괜찮아요.

00:44:39.139 --> 00:44:40.329

여기에 쟁점 넣어줄 수 있어요.

00:44:40.429 --> 00:44:42.164

철수, 민수가 영화를 봤다.

00:44:42.264 --> 00:44:43.380

이럴 수 있습니다.

00:44:43.480 --> 00:44:46.268

그런데 이 자리는 철수가
민수, 영화를 봤다?

00:44:46.368 --> 00:44:47.353

안 되거든요.

00:44:47.453 --> 00:44:50.378

그러니까 삭제 가능하냐,
불가능하냐의 방법도 있지만

00:44:50.478 --> 00:44:52.677

그보다 더 직관적으로
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게

00:44:52.777 --> 00:44:54.793

견주는 대상 가운데에 와 있냐,

00:44:54.893 --> 00:44:58.857

견주는 대상의 바깥에 빠져나와
있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면 돼요.

00:44:58.957 --> 00:44:59.961

이해되세요?

00:45:00.061 --> 00:45:03.086

그러면 문장 성분이 서로
달라진다는 건데 이렇게 됩니다.

00:45:03.186 --> 00:45:07.406

철수와 민수가 영화를 봤다고
했을 때 이렇게 돼요.

00:45:07.506 --> 00:45:10.409

영화를 봤다, 이거 지금 서술어죠.

00:45:10.509 --> 00:45:15.940

그다음에 이놈은 지금 둘 다
영화를, 이거는 목적어가 됩니다.

00:45:16.040 --> 00:45:18.975

그러면 주어 필요할
텐데 주어 뭐냐?

00:45:19.075 --> 00:45:26.172

애의 경우에는 이게 통째로

주어라고 봐야죠.

00:45:26.272 --> 00:45:29.850

철수와 민수가 접속
조사로 엮였기 때문에

00:45:29.950 --> 00:45:33.892

하나의 주격 조사를 갖고 있는 이
전체가 다 주어가 되는 거예요.

00:45:33.992 --> 00:45:35.830

이게 다.

00:45:35.930 --> 00:45:41.602

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어
뭐냐면, 애만 주어인 거예요.

00:45:41.702 --> 00:45:44.366

철수가 본 거예요.
그런데 누구랑 봤느냐?

00:45:44.466 --> 00:45:47.364

민수와 봤다, 이거로
뭐로 봐야 되겠죠?

00:45:47.464 --> 00:45:52.919

부사격 조사로 봤으니까 부사어가
된다는 겁니다, 이때는.

00:45:53.019 --> 00:45:54.422

알겠죠?

00:45:54.522 --> 00:45:56.873

부사격 조사로 봤으면
부사어가 된 거니까

00:45:56.973 --> 00:45:58.491

주어, 부사어, 목적어, 서술어.

00:45:58.591 --> 00:46:01.917

그러나 애는 이 가가 주격
조사로 2개를 묶어주기 때문에

00:46:02.017 --> 00:46:05.138

주어와 그다음에 목적어,
서술어 구조로 본다는 거죠.

00:46:05.238 --> 00:46:06.674

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.

00:46:06.774 --> 00:46:10.063

이 자리에 랑이나 하고,
똑같이 올 수 있잖아요.

00:46:10.163 --> 00:46:13.787

철수와 민수가,
철수랑 민수가 영화를 봤다.

00:46:13.887 --> 00:46:17.455

철수하고 민수가 영화를
봤다, 구조는 똑같아요.

00:46:17.555 --> 00:46:22.830
그래서 A, B 사이에 껴 있는지
아니면 빠져 나와 있는지를 가지고

00:46:22.930 --> 00:46:27.230
우리가 부사격 조사와 접속
조사 구분하면 되는 거고요.

00:46:27.330 --> 00:46:28.560
다시.

00:46:28.660 --> 00:46:30.340
부사격 조사 종류 많잖아요.

00:46:30.440 --> 00:46:34.450
이게 격조사는 양의 대부분인 거지
나머지는 헛갈리지도 않잖아요.

00:46:34.550 --> 00:46:37.416
지금은 한 번에
외우라고 할 수 없지만

00:46:37.516 --> 00:46:40.100
자꾸 눈에 익혀서,
꼭이요, 숙제입니다.

00:46:40.200 --> 00:46:41.604
꼭 정확하게.

00:46:41.704 --> 00:46:43.856
그래서 방향, 처소
틀을 딱 잡는 거야.

00:46:43.956 --> 00:46:48.210
방향, 처소는 어디 어디에, 어디
어디로, 어디 어디에서 이런 거지.

00:46:48.310 --> 00:46:50.525
그다음에 대상이니까 ~에게.

00:46:50.625 --> 00:46:55.350
에게는 구어체로는 안 쓰이니까
실제로는 ~한테, ~더러, ~보고.

00:46:55.450 --> 00:46:57.216
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했어.

00:46:57.316 --> 00:47:01.024
그다음에 비교 부사격 조사로
A가 B만큼, A가 B보다,

00:47:01.124 --> 00:47:05.074
A가 B처럼, A가 B같이,
마따나 그것도 있었지.

00:47:05.174 --> 00:47:06.667
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고.

00:47:06.767 --> 00:47:10.316
그다음에 수단, 도구, 자격의

개념으로 으로써, 로서 있었잖아.

00:47:10.416 --> 00:47:12.012

그거 언제 로서였지?
언제 로써였지?

00:47:12.112 --> 00:47:13.357

이런 거 구분하면 되는 거고.

00:47:13.457 --> 00:47:14.897

인용 조사격 부사에 라고, 고.

00:47:14.997 --> 00:47:18.596

그다음에 마지막 동반의 개념
와, 과, (이)랑, 하고.

00:47:18.696 --> 00:47:23.066

이렇게 틀을 잡고 외우다보면
얼마 많지 않아요.

00:47:23.166 --> 00:47:25.545

그런데 이게 여러분에게
엄청 힘이 될 겁니다.

00:47:25.645 --> 00:47:36.759

그래야 보조사를 잘
판단할 수가 있어요.

00:47:39.877 --> 00:47:41.917

이제 보조사로 넘어갑니다.

00:47:42.017 --> 00:47:47.948

보조사는 격조사가 아니에요.

00:47:48.048 --> 00:48:02.241

보조사는 격을 가지지 않습니다.

00:48:02.341 --> 00:48:06.373

격조사는 격을 가졌다는 이야기는
그 앞에 붙어 있는 체언에

00:48:06.473 --> 00:48:09.331

문장 성분의 자격을
부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.

00:48:09.431 --> 00:48:11.983

그래서 보조사는 그
보조사가 붙었기 때문에

00:48:12.083 --> 00:48:14.039

애가 주어야, 애가 목적어야.

00:48:14.139 --> 00:48:16.115

이거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.

00:48:16.215 --> 00:48:23.518

그래서 보조사가 온 자리는
다른 격조사로 대체해야 돼요.

00:48:23.618 --> 00:48:25.645

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된다?

00:48:25.745 --> 00:48:27.162
격조사를 외워야 되는 거죠.

00:48:27.262 --> 00:48:28.963
이 자리에 어울리는
격조사가 뭐가 있을까.

00:48:29.063 --> 00:48:32.068
그랬을 때 아까 전에 배웠던 이
격조사들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.

00:48:32.168 --> 00:48:33.854
그래서 어울리는 자리가 있다.

00:48:33.954 --> 00:48:36.683
그러면 애는 부사격 조사가
어울리니까 애는 부사어구나.

00:48:36.783 --> 00:48:39.608
주격 조사가 어울리니까 애는 주어구나,
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.

00:48:39.708 --> 00:48:41.090
보도록 할게요.

00:48:41.190 --> 00:48:44.944
아까 전에 주격 조사로 은, 는,
이, 가 이러면 틀리다고 했잖아요.

00:48:45.044 --> 00:48:46.908
뭐가 주격 조사였습니까?

00:48:47.008 --> 00:48:51.345
이, 가, 높임의 께서,
그리고 단체 기관 에서.

00:48:51.445 --> 00:48:53.301
은, 는은 아닌데 봅시다.

00:48:53.401 --> 00:49:00.075
여기서의 은, 는이
대표적인 보조사입니다.

00:49:00.175 --> 00:49:03.802
여기 문장이 두 가지가
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.

00:49:03.902 --> 00:49:07.782
그러면 인생은 짧다,
예술은 길다 할 때

00:49:07.882 --> 00:49:10.459
짧고와 길다 모두 서술어고.

00:49:10.559 --> 00:49:12.446
주어 자리에 뭐가 필요한 거죠?

00:49:12.546 --> 00:49:15.996
인생, 예술은 이게 주어예요.

00:49:16.096 --> 00:49:17.960
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많이 합니다.

00:49:18.060 --> 00:49:21.713
은, 이게 주어 아니냐, 주격
조사 만드는 거 맞잖아요.

00:49:21.813 --> 00:49:23.694
그러면 격조사 맞네.

00:49:23.794 --> 00:49:26.086
그래요?

00:49:26.186 --> 00:49:28.198
그러면 보세요.

00:49:28.298 --> 00:49:46.438
철수는 나를 좋아해.

00:49:46.538 --> 00:49:48.903
이런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49:49.003 --> 00:49:57.624
철수가 나는 좋아해.

00:49:57.724 --> 00:50:00.452
이런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50:00.552 --> 00:50:04.327
항상 문장의 성분을 따질 때는
서술어에서 올라온다고 했어요.

00:50:04.427 --> 00:50:08.503
지금 서술어 뭐죠? 좋아해,
이놈이 서술어예요.

00:50:08.603 --> 00:50:12.532
누가 좋아하는 마음을
갖고 있는 주체인지 보면

00:50:12.632 --> 00:50:17.491
위의 문장에서는 누가 좋아하는
마음을 가지고 있어요?

00:50:17.591 --> 00:50:18.762
철수가.

00:50:18.862 --> 00:50:21.015
여기도 철수가 좋아하는
마음을 가지고 있죠.

00:50:21.115 --> 00:50:22.321
누구를 좋아하는 거죠?

00:50:22.421 --> 00:50:24.677
나를 좋아하는 건데
똑같아요, 이게.

00:50:24.777 --> 00:50:27.795
애가 지금 주어의 위치에
와 있는 거고요.

00:50:27.895 --> 00:50:34.005
그다음에 애는 목적어에 있습니다.

00:50:34.105 --> 00:50:38.350
그런데 주목해 봐야
되는 거는 이거죠.

00:50:38.450 --> 00:50:40.939
는이 주격 조사 맞아요?

00:50:41.039 --> 00:50:44.350
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와 있어요?

00:50:44.450 --> 00:50:45.859
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?

00:50:45.959 --> 00:50:49.483
는이 주격 조사라면 애도
주어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

00:50:49.583 --> 00:50:52.021
애는 분명 나를 좋아하는 거잖아요.

00:50:52.121 --> 00:50:54.684
그러니까 애는 내가
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.

00:50:54.784 --> 00:50:57.228
그러면 주어가 아니에요,
행위의 주체가 주어인데.

00:50:57.328 --> 00:51:00.829
행위를 하는 주체가 주어인데
이거는 대상이잖아요.

00:51:00.929 --> 00:51:02.565
목적어 되는 대상.

00:51:02.665 --> 00:51:05.841
따라서 는은 격이 없어요.

00:51:05.941 --> 00:51:09.358
그 격이 없는 는,
은 이런 보조사들은

00:51:09.458 --> 00:51:12.078
알고 있는 격조사로
대체를 해줘야 되는데

00:51:12.178 --> 00:51:14.142
그러면 이 자리는 무슨
자리라는 이야기입니까?

00:51:14.242 --> 00:51:16.080
이 자리는 가가 올
수 있는 자리죠.

00:51:16.180 --> 00:51:17.359
철수가 나를 좋아해.

00:51:17.459 --> 00:51:21.419
그러니까 이게 주격 조사를
대체하고 있는 보조사 는이구나.

00:51:21.519 --> 00:51:24.111
그래서 애는 주어구나, 이렇게
정리를 하는 거예요.

00:51:24.211 --> 00:51:26.798
그에 반해 가가 지금 나와 있는데

00:51:26.898 --> 00:51:29.547
나는 좋아해, 라고 할
때 나를 좋아해.

00:51:29.647 --> 00:51:33.399
목적격 조사가 올 수
있는 자리였기 때문에

00:51:33.499 --> 00:51:35.851
애가 목적어구나, 이렇게
판단되는 거지.

00:51:35.951 --> 00:51:39.296
는 때문에 주어다, 목적어라는
거는 판단할 수 없어요.

00:51:39.396 --> 00:51:42.807
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
보조사는 격이 없어요.

00:51:42.907 --> 00:51:49.600
따라서 이 보조사를 가지고 있는
문장 성분이 뭘까를 알고 싶으면

00:51:49.700 --> 00:51:51.831
격조사로 빨리 빨리
대체하셔야 됩니다.

00:51:51.931 --> 00:51:53.752
따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예요.

00:51:53.852 --> 00:51:57.731
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에서
은이 대표적인 보조사입니다.

00:51:57.831 --> 00:51:59.637
이 자리에 지금 뭐가 와야 돼요?

00:51:59.737 --> 00:52:04.305
인생이, 예술이 이런 주격 조사가
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.

00:52:04.405 --> 00:52:05.808
대체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.

00:52:05.908 --> 00:52:07.619
따라서 애는 주어가 되는 거죠.

00:52:07.719 --> 00:52:09.774
그 다음 거 가겠습니다.

00:52:09.874 --> 00:52:12.235
소설만 읽지 말고 시도 읽어라.

00:52:12.335 --> 00:52:16.853
여기서 지금 서술어
한번 볼게요, 뭐예요?

00:52:16.953 --> 00:52:21.748
읽지 말고, 읽어라 서술어가 되죠.

00:52:21.848 --> 00:52:24.808
지금 문장이 여기서 딱
끊어진다고 보면 되는데.

00:52:24.908 --> 00:52:28.928
주어 어디 있어요? 생략.

00:52:29.028 --> 00:52:31.807
그리고 문장에서 꼭 주어
넣어줄 필요는 없습니다.

00:52:31.907 --> 00:52:36.711
주격 조사도 생략하지만
주어도 빼는 경우 많아요.

00:52:36.811 --> 00:52:39.414
너 뭐 먹을래?
너 뭐 시켜 먹을 거니?

00:52:39.514 --> 00:52:43.243
짜장면 먹을래요, 이러면
나는 짜장면을 먹을래요.

00:52:43.343 --> 00:52:44.902
이렇게 나는을 꼭 붙여줍니까?

00:52:45.002 --> 00:52:47.267
영어권에서는 I로 무조건
출발해야 되지만

00:52:47.367 --> 00:52:50.749
우리는 나는 짜장면을 좋아해,
나는 짜장면을 먹을 거야.

00:52:50.849 --> 00:52:52.771
이렇게 하면 오글거리지 않아요?

00:52:52.871 --> 00:52:55.564
우리 국어 화자들은 막 그렇게
주어를 많이 붙이지 않아요.

00:52:55.664 --> 00:53:00.253
이 문장에서도 야, 너는
이렇게 굳이 안 넣어줘도

00:53:00.353 --> 00:53:01.510
우리는 문맥이 통합니다.

00:53:01.610 --> 00:53:03.958
그러니까 여기서

생략돼 있는 주어가 너는,

00:53:04.058 --> 00:53:05.803
이 정도 생각해보시면 되겠고.

00:53:05.903 --> 00:53:07.888
그러면 애는 뭐의 기능이에요?

00:53:07.988 --> 00:53:13.284
이 만, 도와 같은 이놈들이
격조사가 아니거든요.

00:53:13.384 --> 00:53:14.954
이거 지금 보조사입니다.

00:53:15.054 --> 00:53:16.838
그러면 뭐를 대체하고 있는 거다?

00:53:16.938 --> 00:53:20.476
소설을 읽지 말고요.

00:53:20.576 --> 00:53:22.330
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?

00:53:22.430 --> 00:53:24.994
을이라는 목적격 조사가
오면 딱 좋은 자리.

00:53:25.094 --> 00:53:29.079
이것도 시를 읽어라, 라고
할 때 목적격 조사가 오면

00:53:29.179 --> 00:53:31.819
딱 좋은 자리이기
때문에 소설만, 시도

00:53:31.919 --> 00:53:34.350
이거는 전부 다 뭐가 된다?
목적어.

00:53:34.450 --> 00:53:39.295
만이나 도 때문이 아니에요.

00:53:39.395 --> 00:53:43.567
심지어는 만이나 도가 지금 목적격
조사를 대체하고 있었잖아요.

00:53:43.667 --> 00:53:46.686
철수만 나를 좋아해,
그래도 주어예요.

00:53:46.786 --> 00:53:48.381
만 때문에 주어가 아니죠.

00:53:48.481 --> 00:53:51.593
철수가, 이게 올 수 있는
자리이기 때문에 주어다.

00:53:51.693 --> 00:53:52.761
이런 식인 겁니다.

00:53:52.861 --> 00:53:53.847
다음.

00:53:53.947 --> 00:53:56.088
제가요, 숙제를 해야 하거든요.

00:53:56.188 --> 00:54:00.847
이럴 때 도대체 뭐가
보조사라는 이야기냐?

00:54:00.947 --> 00:54:03.242
제가 숙제를 해야 한다.

00:54:03.342 --> 00:54:05.170
여기 지금 서술어가 뭐예요?

00:54:05.270 --> 00:54:09.111
해야 하거든, 이게
지금 서술어예요.

00:54:09.211 --> 00:54:11.008
뭐를요? 숙제를.

00:54:11.108 --> 00:54:12.166
이게 목적격 조사죠.

00:54:12.266 --> 00:54:13.856
들은 목적격 조사니까
애는 목적어가 됩니다.

00:54:13.956 --> 00:54:16.400
주어는 뭐죠? 제가.

00:54:16.500 --> 00:54:17.824
제가 숙제를 해야 하거든요.

00:54:17.924 --> 00:54:20.112
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어인 거죠.

00:54:20.212 --> 00:54:26.776
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
이상한 게 붙어 있어요.

00:54:26.876 --> 00:54:29.185
이거 빼줘도 되지 않을까요?

00:54:29.285 --> 00:54:33.722
이때는 반말이 돼버리면
내가로 바뀌기는 하겠죠.

00:54:33.822 --> 00:54:35.691
내가 숙제를 해야 하거든?

00:54:35.791 --> 00:54:43.667
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요,
숙제를 해야 하거든요.

00:54:43.767 --> 00:54:46.559
요를 붙였어요.
이 요가 뭐냐?

00:54:46.659 --> 00:54:48.316
뒤양스를 덧대준 겁니다.

00:54:48.416 --> 00:54:50.967
그래서 요 뒤양스는
높임의 뒤양스죠.

00:54:51.067 --> 00:54:52.079
보조사입니다.

00:54:52.179 --> 00:54:55.217
격은 가지고 있지도
않고 생략도 가능해요.

00:54:55.317 --> 00:55:00.740
그래서 정리를 해보죠.

00:55:09.135 --> 00:55:17.657
문장 내의 보조사는
격조사를 대체하고 있거나

00:55:17.757 --> 00:55:30.262
아니면 또는 추가된 상태이다.

00:55:30.362 --> 00:55:32.848
즉 이때 추각됐다는 이야기는
없어도 되는 거예요.

00:55:32.948 --> 00:55:37.949
생략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.

00:55:38.049 --> 00:55:43.021
지금 위의 문장에서 이때 은
같은 경우에는 생략은 안 되죠.

00:55:43.121 --> 00:55:45.034
격조사를 대체하고 있는 게 맞아요.

00:55:45.134 --> 00:55:49.328
또 여기에 만도 생략이
되는 게 아니라

00:55:49.428 --> 00:55:51.513
격조사를 대체하는 자리입니다.

00:55:51.613 --> 00:55:53.876
그러면 이때 격조사 뭐를
대체하고 있는지 판단하면

00:55:53.976 --> 00:55:55.306
문장 성분이 나오는데.

00:55:55.406 --> 00:55:59.007
여기 지금 요 같은
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죠?

00:55:59.107 --> 00:56:01.542
추가된 거, 없어도 되는데
굳이 넣어주는 거.

00:56:01.642 --> 00:56:05.291

물론 추가했을 때에는 아무 의미 없이 넣어주는 거는 아니죠.

00:56:05.391 --> 00:56:09.330

뉘앙스라는 게
덧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

00:56:09.430 --> 00:56:11.349

어감이 추가가 되죠.

00:56:11.449 --> 00:56:17.742

뭔가 느낌 이거죠, 어감이
더해진다는 겁니다.

00:56:17.842 --> 00:56:21.946

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
보조사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.

00:56:22.046 --> 00:56:25.726

그러면 잠깐 여러분, 멈춰놓고.

00:56:25.826 --> 00:56:28.228

그 녀석이 룡패당을 입었다.

00:56:28.328 --> 00:56:31.668

이 문장을 보면
입었다, 서술어예요.

00:56:31.768 --> 00:56:35.134

누가 입었죠? 그 녀석이,
이게 주어가 되고 룡패당을.

00:56:35.234 --> 00:56:39.896

요즘은 너 나 할 것 없이
룡패당이야, 유행을 또 타더라고요.

00:56:39.996 --> 00:56:42.869

그래서 룡패당을, 이게 바로
목적어가 되는 거잖아요.

00:56:42.969 --> 00:56:44.403

목적격 조사니까.

00:56:44.503 --> 00:56:46.331

이거 이는 주격 조사 맞죠?

00:56:46.431 --> 00:56:48.021

네, 애는 주격 조사입니다.

00:56:48.121 --> 00:56:49.651

그래서 주어고요.

00:56:49.751 --> 00:56:51.416

애는 목적격 조사 을이
붙었으니까 목적어고요.

00:56:51.516 --> 00:56:53.144

서술어고요.

00:56:53.244 --> 00:56:58.847

이 자리에 다른 놈들을

넣을 수가 있어요.

00:56:58.947 --> 00:57:00.590
딱 붙여 쓸 수 있는 조사.

00:57:00.690 --> 00:57:05.721
한번 여러분, 멈추고 쓸 수
있는 거 쪽 써보시기 바랍니다.

00:57:05.821 --> 00:57:09.802
어떤 게 더 있을까요?

00:57:09.902 --> 00:57:13.514
그러면 선생님이 한번
적어보도록 할게요.

00:57:13.614 --> 00:57:17.442
일단 위에 나오는 거 다시
한 번 재탕해볼까요?

00:57:17.542 --> 00:57:21.966
그 녀석은 룡패딩을 입었다.

00:57:22.066 --> 00:57:25.665
그러면 이게 그냥 아무
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

00:57:25.765 --> 00:57:27.550
뉘앙스가 좀 더 있어요.

00:57:27.650 --> 00:57:31.108
대체가 되면서도 어감이
더해지는데 이런 거죠.

00:57:31.208 --> 00:57:33.761
엄마, 철수가 룡패딩을 입었어요.

00:57:33.861 --> 00:57:36.095
그러면 그냥 사실
정보만 전달한 건데

00:57:36.195 --> 00:57:38.484
엄마.. 철수는 룡패딩
입었어요...

00:57:38.584 --> 00:57:42.427
이렇게 나오면 근데 나는?
이런 대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?

00:57:42.527 --> 00:57:46.656
야, 철수가 이번 시험
100점 맞았더라.

00:57:46.756 --> 00:57:49.010
이렇게 이야기할 때는
정보를 주는 건데

00:57:49.110 --> 00:57:53.594
철수가 이번 시험에
100점 맞았다고 하면

00:57:53.694 --> 00:57:55.385
정보 제공만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.

00:57:55.485 --> 00:57:58.559
그런데 야, 철수는 이번
시험에 100점 맞았더라.

00:57:58.659 --> 00:58:01.162
이러면 그 이야기 왜 나한테
하는지 의미가 딱 사는 거죠.

00:58:01.262 --> 00:58:02.528
왜? 는 때문에.

00:58:02.628 --> 00:58:06.502
이미 대조성 또는 강조, 화제성을
나타내주는 눈이 있습니다.

00:58:06.602 --> 00:58:10.401
그래서 여기에 은, 는 같은
강조 느낌나는 보조사 맞죠.

00:58:10.501 --> 00:58:15.025
그다음에 그 녀석만
론패당을 입었다, 혼자서.

00:58:15.125 --> 00:58:19.055
그 녀석도 론패당을 입었다.

00:58:19.155 --> 00:58:22.225
또 대체할 수 있는
거 뭐 있을까요?

00:58:22.325 --> 00:58:29.451
그 녀석부터 론패당을 입었다.

00:58:29.551 --> 00:58:34.155
그 녀석까지 론패당을 입었다.

00:58:34.255 --> 00:58:36.962
그러면 애부터 시작했다는 이야기고
이거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잖아요.

00:58:37.062 --> 00:58:41.241
그 녀석조차 론패당을 입었다.

00:58:41.341 --> 00:58:46.524
그 녀석마저 론패당을 입었다.

00:58:46.624 --> 00:58:55.326
그 녀석이나마 론패당을 입었다.

00:58:55.426 --> 00:59:01.488
그 녀석이라도 론패당을 입었다.

00:59:01.588 --> 00:59:03.137
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?

00:59:03.237 --> 00:59:05.698
이런 식으로 가는 놈들이 보조사인데

00:59:05.798 --> 00:59:07.294
보조사의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.

00:59:07.394 --> 00:59:09.782
그래서 그 많은
보조사들을 다 외워라?

00:59:09.882 --> 00:59:11.166
그거는 힘들어요.

00:59:11.266 --> 00:59:13.196
격조사 외우는 것도
지금 많이 있었잖아요.

00:59:13.296 --> 00:59:15.806
그러면 이제 헛갈릴 거란 말이에요.

00:59:15.906 --> 00:59:17.819
지금 부터, 까지, 조차 이런 게

00:59:17.919 --> 00:59:22.167
아까 전에 부사격 조사 외웠던
거랑 겹치게 돼버리면

00:59:22.267 --> 00:59:25.443
뭐야, 이거 부사어인가? 이러면
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

00:59:25.543 --> 00:59:29.471
애네들은 지금 전부 다 격을 가지고
있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

00:59:29.571 --> 00:59:32.042
애네들 자리에 만약에 부더가 왔다.

00:59:32.142 --> 00:59:33.544
그 녀석부터 룡패당을 입었다.

00:59:33.644 --> 00:59:35.480
입었다의 주어가 뭐지? 그 녀석이.

00:59:35.580 --> 00:59:38.729
아, 이거 주격 조사 이를
대체하고 있는 보조사구나.

00:59:38.829 --> 00:59:40.822
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지.

00:59:40.922 --> 00:59:43.985
이런 거를 막 격조사랑
헛갈려하면 안 되는 겁니다.

00:59:44.085 --> 00:59:56.385
그러면 보조사의 기능에 대해서
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.

00:59:56.485 --> 00:59:59.443
보조사는 격조사를
대체한다고 했습니다.

00:59:59.543 --> 01:00:01.367

그러면 이런 질문을
던질 수가 있어요.

01:00:01.467 --> 01:00:05.798

여기 도, 도, 도라는 똑같은
보조사가 나와 있는데.

01:00:05.898 --> 01:00:11.788

너도, 물도, 나도의 문장
성분을 이야기해보세요.

01:00:14.338 --> 01:00:17.383

먼저 첫 번째 문장,
너도 물을 마실 거니?

01:00:17.483 --> 01:00:22.410

여기에서의 너도는 문장
성분이 무슨 어일까요?

01:00:22.510 --> 01:00:28.036

정답은 주어가 되겠죠.

01:00:28.136 --> 01:00:30.379

왜 그렇습니까?

01:00:30.479 --> 01:00:34.698

마실 거니? 여기서 애가
서술어인데 누가 마시는 거죠?

01:00:34.798 --> 01:00:36.476

너가 마시는 겁니다.

01:00:36.576 --> 01:00:39.169

그러니까 이 자리가 무슨
자리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?

01:00:39.269 --> 01:00:42.872

가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.

01:00:42.972 --> 01:00:45.140

가를 대체하는 거예요.

01:00:45.240 --> 01:00:48.152

그러면 이때 도, 보조사는
격이 없기 때문에

01:00:48.252 --> 01:00:51.649

가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
주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.

01:00:51.749 --> 01:00:55.676

다음 거는요?

01:00:55.776 --> 01:00:58.877

물도, 여기서의 문장 성분은 뭐?

01:00:58.977 --> 01:01:02.098

목적어가 되겠죠.

01:01:02.198 --> 01:01:04.274

왜? 서술어 뭐예요?

01:01:04.374 --> 01:01:06.086
사와야겠다.

01:01:06.186 --> 01:01:07.983
누가? 네가.

01:01:08.083 --> 01:01:10.939
뭐를? 물을이죠.

01:01:11.039 --> 01:01:13.814
너가 물을 사와야겠다.

01:01:13.914 --> 01:01:16.658
목적격 조사가 대체돼 있는 거예요.

01:01:16.758 --> 01:01:18.659
그러니까 애는 목적어가 되는 거죠.

01:01:18.759 --> 01:01:20.301
도 때문이 아니래요.

01:01:20.401 --> 01:01:24.869
도가 을을 대체한 거기
때문에 목적어인 겁니다.

01:01:24.969 --> 01:01:30.487
세 번째는요?

01:01:30.587 --> 01:01:33.097
뭐를 대체하고 있습니까?

01:01:33.197 --> 01:01:37.814
부사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.

01:01:37.914 --> 01:01:38.913
볼까요?

01:01:39.013 --> 01:01:43.550
서술어 뭐예요? 주겠니?

01:01:43.650 --> 01:01:46.790
주어 아니예요? 큰일납니다.

01:01:46.890 --> 01:01:48.855
주겠니? 누구한테 물어봤죠?

01:01:48.955 --> 01:01:52.271
너는 주겠니? 문장에서 지금
주어가 빠져 있는 거예요.

01:01:52.371 --> 01:01:59.616
너는 주겠니? 이게
생략돼 있는 구조죠.

01:01:59.716 --> 01:02:01.357
나한테 물어봅니까?

01:02:01.457 --> 01:02:04.104
너는 주겠니? 너가 행위의 주체.

01:02:04.204 --> 01:02:06.560
이게 지금 생략된 주어예요.

01:02:06.660 --> 01:02:09.062
물 줌 주겠니?
목적어 필요하잖아요.

01:02:09.162 --> 01:02:12.450
물을 줌 주겠니? 여기 뒤에는
뭐가 생략돼 있는 겁니까?

01:02:12.550 --> 01:02:16.196
조사 막 빼는 거죠, 목적격
조사 없이 생략돼 있는 구조니까

01:02:16.296 --> 01:02:19.455
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? 목적어.

01:02:19.555 --> 01:02:20.948
애는 목적어예요.

01:02:21.048 --> 01:02:23.328
그러면 애는 정체가 뭐예요?

01:02:23.428 --> 01:02:26.464
A가 물을 주다.

01:02:26.564 --> 01:02:29.982
뭐도 필요하죠? 누구에게
주는지가 나와야죠.

01:02:30.082 --> 01:02:32.433
그러면 너는 나에게 물 줌 주겠니?

01:02:32.533 --> 01:02:34.041
이거 지금 뭐 대체하고 있는 거야?

01:02:34.141 --> 01:02:35.265
에게를 대체하는 거죠.

01:02:35.365 --> 01:02:38.764
그러니까 이에게가
무슨 격 조사였어요?

01:02:38.864 --> 01:02:41.182
부사격 조사였단 말이에요.

01:02:41.282 --> 01:02:44.442
그래서 부사격 조사를
대체하고 있는 저 도도

01:02:44.542 --> 01:02:46.362
위치상 부사어가 된다.

01:02:46.462 --> 01:02:50.965
이렇게 도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
성분이 에게를 대체하니까 부사어다.

01:02:51.065 --> 01:02:52.962
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.

01:02:53.062 --> 01:02:54.304
아시겠어요?

01:02:54.404 --> 01:02:57.073
그래서 이렇게 격조사를
대체할 때에는

01:02:57.173 --> 01:02:59.522
그러면 선생님, 다른 거
격조사 대체할 수도 있나요?

01:02:59.622 --> 01:03:01.747
네, 보격 조사도
대체할 수 있어요.

01:03:01.847 --> 01:03:02.970
이, 가.

01:03:03.070 --> 01:03:06.051
그런데 서술격 조사나 관형격
조사를 대체하지는 않아요.

01:03:06.151 --> 01:03:09.814
호격 조사, 서술격 조사, 관형격
조사를 대체하지는 않습니다.

01:03:09.914 --> 01:03:23.568
그래서 보조사가 대체할 수
있는 격조사라고 한다면

01:03:23.668 --> 01:03:33.134
주격 조사, 목적격 조사, 부사격
조사, 그다음에 보격 조사.

01:03:33.234 --> 01:03:34.928
이 정도까지는 가능해요.

01:03:35.028 --> 01:03:38.407
이제 그다음 4개의 문장을 보면

01:03:38.507 --> 01:03:41.643
이 도가 붙을 수 있는 환경이
다양하다는 것을 알려드릴게요.

01:03:41.743 --> 01:03:43.578
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.

01:03:43.678 --> 01:03:48.284
격조사의 경우에는 우리
조사 뒤에 뭐가 붙어요?

01:03:48.384 --> 01:03:54.325
조사는 체언 뒤에 붙는 겁니다.

01:03:59.395 --> 01:04:02.779
체언 뒤에 붙어 쓰는
품사가 바로 조사예요.

01:04:02.879 --> 01:04:07.385
그런데 여기 이 정의에 해당하는 조사는
딱 격조사만 이야기하는 겁니다.

01:04:07.485 --> 01:04:13.400
다시 말씀드리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
격조사만 체언 뒤에 붙는 거지

01:04:13.500 --> 01:04:18.529
격조사 말고 보조사는 체언 뒤에
굳이 붙을 필요도 없어요.

01:04:18.629 --> 01:04:22.339
물론 격조사 중에서는
예외가 하나 있어요.

01:04:22.439 --> 01:04:26.839
체언 뒤에 붙어 쓰지 않아도
되는 격조사가 하나 있는데.

01:04:26.939 --> 01:04:31.100
서술격 조사가 예외입니다.

01:04:35.477 --> 01:04:39.790
예문 하나를 만들어볼게요.

01:04:39.890 --> 01:04:54.541
내가 너를 좋아하는
거는 내가 예뻐서이다.

01:04:54.641 --> 01:04:56.361
이렇게 썼어요.

01:04:56.461 --> 01:05:03.868
그러면 지금 서술격 조사 이다가
체언 명사 뒤에 붙은 게 아니에요.

01:05:03.968 --> 01:05:04.947
좀 이상하죠.

01:05:05.047 --> 01:05:06.976
예뻐서가 구조가 어떻게
되는 겁니까?

01:05:07.076 --> 01:05:11.089
예쁘다, 라는 용언의
어간 형용사죠.

01:05:11.189 --> 01:05:14.788
예쁘다에 더하기
어서라는 연결 어미.

01:05:14.888 --> 01:05:18.914
이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용언
공부하면서 구조를 공부할 텐데.

01:05:19.014 --> 01:05:20.975
이렇게 체언이 아닌 구조.

01:05:21.075 --> 01:05:28.199
이렇게 용언의 연결 어미 뒤에도

01:05:28.299 --> 01:05:31.319
이다가 붙을 수 있는 환경이

만들어지기도 해요.

01:05:31.419 --> 01:05:33.229
그러니까 이거는 예외적인 건데

01:05:33.329 --> 01:05:37.430
그러나 나머지 주격 조사,
목적격 조사, 관형격 조사

01:05:37.530 --> 01:05:40.841
이런 것들이 체언 아닌데 붙었다?
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.

01:05:40.941 --> 01:05:44.027
그래서 격조사는 아주 엄격하게
체언 뒤에서 붙어 쓰지만

01:05:44.127 --> 01:05:46.625
보조사는 이렇게 쓰임이 다양해요.

01:05:46.725 --> 01:05:49.032
먼저 가보겠습니다.

01:05:49.132 --> 01:05:50.527
내년에도 또 놀러 오렴.

01:05:50.627 --> 01:05:53.141
이 도가 지금 뭐 뒤에 붙었죠?

01:05:53.241 --> 01:05:56.649
내년, 내가 무슨격 조사입니까?

01:05:56.749 --> 01:05:58.135
부사격 조사죠.

01:05:58.235 --> 01:06:00.606
지금 너는 내년에 놀러 와,
라고 할 때

01:06:00.706 --> 01:06:02.941
내년애가 놀러오다를
꾸며주게 됩니다.

01:06:03.041 --> 01:06:06.547
뭐 때문예요? 에라는
격조사가 있기 때문에.

01:06:06.647 --> 01:06:08.326
부사격 조사니까요.

01:06:08.426 --> 01:06:16.385
그래서 지금 이 도는 격조사
뒤에 붙은 거를 알 수 있죠.

01:06:16.485 --> 01:06:17.585
추가됐죠.

01:06:17.685 --> 01:06:20.996
지금 애네들은 뭐였어요? 대체하는
기능을 했었던 말이에요.

01:06:21.096 --> 01:06:23.343

그런데 이번에는 추가한
놈들을 볼게요.

01:06:23.443 --> 01:06:27.218

다음, 오늘 어려우면
내일까지도 괜찮아요.

01:06:27.318 --> 01:06:29.240
이거는 지금 어디에 붙었습니까?

01:06:29.340 --> 01:06:31.766
까지라는 조사 뒤에 붙었죠.

01:06:31.866 --> 01:06:34.786
내일이라는 체언 뒤에
조사가 붙어 있는데

01:06:34.886 --> 01:06:38.036
까지는 무슨 조사예요? 보조사죠.

01:06:38.136 --> 01:06:43.997
그러니까 보조사 뒤에
또 추가됐어요.

01:06:44.097 --> 01:06:47.561
격조사 뒤에도 또 붙일 수도 있고
보조사 뒤에도 또 붙일 수 있고.

01:06:47.661 --> 01:06:48.817
이거 볼까요?

01:06:48.917 --> 01:06:50.675
어이구, 정말 많이도 사 왔다.

01:06:50.775 --> 01:06:58.377
그러면 많이는 뭐냐?
이거는 부사입니다.

01:06:58.477 --> 01:07:02.984
이 자체가 많이 사다, 이렇게
해서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인데

01:07:03.084 --> 01:07:05.301
부사 뒤에 붙어 있어요.

01:07:05.401 --> 01:07:09.519
체언 뒤에만 붙은 게 아니라 명사,
대명사, 관형사 뒤에만 붙은 게 아니라

01:07:09.619 --> 01:07:11.837
다른 품사 뒤에도 붙은
거를 볼 수 있죠.

01:07:11.937 --> 01:07:14.865
부사 뒤에 추가됐죠, 또.

01:07:14.965 --> 01:07:16.276
그런데 이것도 볼까요?

01:07:16.376 --> 01:07:18.546

고구마는 구워 먹고 삶아 먹는다.

01:07:18.646 --> 01:07:21.672

이래도 되는데 구워도
먹고 삶아도 먹는다.

01:07:21.772 --> 01:07:24.510

이렇게 해서
애는 지금 아까 했던,

01:07:24.610 --> 01:07:26.799

내가 너를 좋아하는
거는 내가 예뻐서이다.

01:07:26.899 --> 01:07:31.011

여기서 연결형 뒤에 붙은 것처럼
이것도 어떤 구조예요?

01:07:31.111 --> 01:07:38.056

굽다 더하기 어, 그다음에
삶다 더하기 아.

01:07:38.156 --> 01:07:39.449

연결 어미거든요.

01:07:39.549 --> 01:07:43.027

왜 굽어가 구어가 되는지는
다음 시간에 공부할 테고요.

01:07:43.127 --> 01:07:51.879

이렇게 해서 용언의 연결 어미
뒤에도 붙을 수 있어요.

01:07:51.979 --> 01:07:57.551

추가된 거죠, 이런 구조를
볼 수가 있어요.

01:07:57.651 --> 01:08:11.937

또 심지어는 이렇게도
붙을 수 있어요.

01:08:12.037 --> 01:08:18.209

집이 참 깨끗도 하다,
이렇게도 가능합니다.

01:08:18.309 --> 01:08:20.220

이거는 되게 특이한 거죠, 또.

01:08:20.320 --> 01:08:23.972

이거는 도대체 뭐야?

01:08:24.072 --> 01:08:27.073

깨끗하다도 아니고 깨끗도는 뭐야?

01:08:27.173 --> 01:08:32.207

이런 거는 깨끗하다를 만들 수
있는 재료에 불과한 거거든요.

01:08:32.307 --> 01:08:38.274

그래서 깨끗 더하기 하다에서
형용사를 만들 수는 있죠.

01:08:38.374 --> 01:08:41.446

그런데 깨끗만 가지고는
품사가 없는 거예요.

01:08:41.546 --> 01:08:48.925

그래서 이런 거는 용언의,
일단 적어만 놓을까요?

01:08:49.025 --> 01:08:50.995

나중에 다 공부하게 되니까.

01:08:51.095 --> 01:08:56.457

불규칙적인 어근, 이게 뭔지는
추후에 설명드립니다.

01:08:56.557 --> 01:09:01.531

어근 뒤에 추가되는 예까지도 봤습니다.

01:09:01.631 --> 01:09:05.667

깨끗도 하다, 이런 식으로 해서
용언의 불규칙적인 어근 뒤 추가.

01:09:05.767 --> 01:09:08.662

이 어근이라는 개념을 추후에
공부를 해야 돼요.

01:09:08.762 --> 01:09:11.657

그래서 이렇게 여러
가지 보조사들의 기능.

01:09:11.757 --> 01:09:15.504

보조사는 격조사를 대체하는 기능.

01:09:15.604 --> 01:09:19.611

그래서 대체할 때에는 무슨격 조사를
대체했는지를 찾아줘야 되고.

01:09:19.711 --> 01:09:22.983

또 대체를 안 하더라도
추가될 수 있는 건데

01:09:23.083 --> 01:09:26.770

그 추가되는 것들이 다양한 환경 뒤에
붙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.

01:09:26.870 --> 01:09:32.083

다양한 보조사들이 되게
많다고 했잖아요.

01:09:32.183 --> 01:09:36.678

얼마나 많은 보조사가 있는지를
찾아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01:09:36.778 --> 01:09:41.656

첫 번째 문장에서 보조사 뭘까요?

01:09:43.669 --> 01:09:45.928

아까 전에 이런 게 있었죠.

01:09:46.028 --> 01:09:47.919

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.

01:09:48.019 --> 01:09:50.850

이것 좀 더 먹지요.
이러면 어떻게 됩니까?

01:09:50.950 --> 01:09:56.200

이것 좀 더 먹지? 이렇게
끝난 건데 종결 어미인데

01:09:56.300 --> 01:09:57.755

거기 뒤에 뭐가 붙었죠?

01:09:57.855 --> 01:10:00.400

요를 붙여서 더 확장이
될 수 있었어요.

01:10:00.500 --> 01:10:03.156

높임의 뒤양스는 있는데
없어도 되는 거였고.

01:10:03.256 --> 01:10:05.100

여기서 지금 보면
이거 좀 더 먹지?

01:10:05.200 --> 01:10:08.745

이러면 될 수 있는 거를 먹지그래?
이런 식으로 붙었죠?

01:10:08.845 --> 01:10:10.113

이게 지금 보조사예요.

01:10:10.213 --> 01:10:12.828

붙여 쓴 거로 찾아보셔야
돼요, 무조건 보조사.

01:10:12.928 --> 01:10:15.437

다음 문장.

01:10:15.537 --> 01:10:18.444

보조사 뭐 있습니까?

01:10:18.544 --> 01:10:21.653

오늘까지 할 때 까지는 보조사였죠.

01:10:21.753 --> 01:10:25.996

다음.

01:10:26.096 --> 01:10:29.122

깨나죠, 이게 한
단어가 아니잖아요.

01:10:29.222 --> 01:10:32.538

그러면 땀이라는 명사
뒤에 깨나가 붙어 있는데

01:10:32.638 --> 01:10:34.128

이런 격조사 없었어요.

01:10:34.228 --> 01:10:35.487

그러면 애는 보조사인 겁니다.

01:10:35.587 --> 01:10:37.404

애는 지금 뭐를 대체하고
있다고 봐야죠?

01:10:37.504 --> 01:10:42.091

땀을 흘렸겠어, 그러면 땀깨나는
문장 성분이 목적어죠.

01:10:42.191 --> 01:10:43.695

흘리다, 무엇을?
땀을.

01:10:43.795 --> 01:10:45.569

을 자리에 깨나가 온 거예요.

01:10:45.669 --> 01:10:49.186

꽤나 아니예요, 꽤나 쓸
거면 띄어서 써야 됩니다.

01:10:49.286 --> 01:10:51.987

땀 띄고 꽤나 이렇게 쓰셔야 돼요.

01:10:52.087 --> 01:10:57.262

그러면 그거는 꽤라는 부사에 나라는
보조사가 붙는 그런 구성입니다.

01:10:57.362 --> 01:11:00.659

다시 옆에 써드릴게요.

01:11:00.759 --> 01:11:03.790

땀 꽤나 흘렸다.

01:11:03.890 --> 01:11:06.495

이때는 꽤로 쓰셔야 되고.

01:11:06.595 --> 01:11:09.791

이때도 마찬가지로
이거랑 연결해볼게요.

01:11:09.891 --> 01:11:12.712

여기서 보조사가 뭘까요?

01:11:12.812 --> 01:11:14.459

그만 떠들고 먹기나 해라.

01:11:14.559 --> 01:11:18.599

여기서 먹기나, 나죠.

01:11:18.699 --> 01:11:22.143

그러니까 먹기를 해라, 이렇게
목적어 나와야 될 자리인데

01:11:22.243 --> 01:11:24.049

목적격 조사가 나와야 될 자리인데

01:11:24.149 --> 01:11:25.879

먹기나 해라, 이런
식으로 썼단 말이에요.

01:11:25.979 --> 01:11:27.893

다른 거 말고 그거, 이런 의미죠,

01:11:27.993 --> 01:11:31.313

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약간
강조 느낌이 나는 나도 있는데.

01:11:31.413 --> 01:11:33.708

애가 땀 꽤,
나 이거 없어도 되죠.

01:11:33.808 --> 01:11:36.016

땀 꽤 흘렀다, 땀을 꽤 흘렀다.

01:11:36.116 --> 01:11:40.065

그러면 애가 부사인데 부사
뒤에 그냥 붙여준 거예요.

01:11:40.165 --> 01:11:41.687

약간 강조 느낌 나게끔.

01:11:41.787 --> 01:11:44.010

그래서 이놈도 지금
이런 보조사입니다.

01:11:44.110 --> 01:11:46.377

그런데 형태가 붙여 쓸 거면

01:11:46.477 --> 01:11:48.557

꽤나가 아닌 깨나라는
보조사가 있는 거예요.

01:11:48.657 --> 01:11:52.023

밑에 있는 거 가보죠, 보조사.

01:11:52.123 --> 01:11:55.633

밤을 좀 줄 테니 가져들 가라.

01:11:55.733 --> 01:11:57.286

뭐가 좀 추가됐죠?

01:11:57.386 --> 01:12:00.430

가져 가라 하면 되는데
가져들 가라.

01:12:00.530 --> 01:12:04.865

이 들이 추가가 되면서 복수의
뉘앙스는 덧붙였습니다.

01:12:04.965 --> 01:12:06.895

역시나 보조사예요, 이런 거.

01:12:06.995 --> 01:12:08.020

다음.

01:12:08.120 --> 01:12:11.442

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.

01:12:11.542 --> 01:12:16.200

여기서 보조사 뭘까요?

01:12:16.300 --> 01:12:19.640

밖에, 이게 보조사입니다.

01:12:19.740 --> 01:12:21.066
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.

01:12:21.166 --> 01:12:24.491
비교.

01:12:35.299 --> 01:12:40.886
아니면 되게 비슷하게.

01:12:51.724 --> 01:12:53.341
이런 구조.

01:12:53.441 --> 01:12:54.762
좀 달라요.

01:12:54.862 --> 01:12:56.961
이거는 그 뒤에 부정어 나오면서

01:12:57.061 --> 01:12:59.571
더 이상은 없다는 의미를
더해주기 위한 보조사입니다.

01:12:59.671 --> 01:13:02.151
그러니까 이거는 주격
조사 자리예요.

01:13:02.251 --> 01:13:05.973
~가 없다고 할 때 주격 조사
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건데.

01:13:06.073 --> 01:13:08.666
이 보조사는 붙여서
써야 되는 밖에입니다.

01:13:08.766 --> 01:13:12.062
그런데 여기는 보면 문
밖에 손님이 왔다.

01:13:12.162 --> 01:13:13.348
바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.

01:13:13.448 --> 01:13:15.110
이거는 되게 비슷한 문장인데,

01:13:15.210 --> 01:13:17.660
나를 알아주는 사람은
너밖에 없다가 아니라

01:13:17.760 --> 01:13:19.505
너 밖에도 여럿 있다.

01:13:19.605 --> 01:13:21.546
이렇게 되면 부정하는
게 아니잖아요.

01:13:21.646 --> 01:13:24.338
그래서 외에도 더 있다는
의미가 되잖아요.

01:13:24.438 --> 01:13:28.738
그러면 이때는 이 밖이라는 명사에

01:13:28.838 --> 01:13:31.418
부사격 조사 예가 붙은 거고.

01:13:31.518 --> 01:13:34.224
애 같은 경우에는 도가
보조사가 되는 거죠.

01:13:34.324 --> 01:13:38.434
도가 보조사로 또 추가가 된 건데.

01:13:38.534 --> 01:13:39.812
애는 보조사

01:13:39.912 --> 01:13:42.301
애는 부사격 조사죠.

01:13:42.401 --> 01:13:47.482
애도 부사격 조사.

01:13:47.582 --> 01:13:52.831
그러니까 애 같은 경우에는 문
바깥에, 너 밖에, 너 외에도

01:13:52.931 --> 01:13:54.312
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.

01:13:54.412 --> 01:13:56.928
그래서 이거는 밖애가 하나짜리
조사가 아닌 거예요.

01:13:57.028 --> 01:14:00.263
이거는 이렇게 쓰면 이 밖애가
하나짜리 뭐가 된다?

01:14:00.363 --> 01:14:01.736
보조사가 됩니다.

01:14:01.836 --> 01:14:03.117
그다음 가볼까요?

01:14:03.217 --> 01:14:07.290
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.

01:14:07.390 --> 01:14:11.344
은도 보조사이기는 하죠.

01:14:11.444 --> 01:14:14.915
이거는 이미 편하게 아는 거고요.

01:14:15.015 --> 01:14:16.279
다음 뭐가 있습니까?

01:14:16.379 --> 01:14:17.873
이것도 다 보조사이기는 하죠.

01:14:17.973 --> 01:14:20.595
그런데 새로운 거를
찾아보려고 해요.

01:14:20.695 --> 01:14:23.691
뭐 있습니까? 뿐.

01:14:23.791 --> 01:14:26.493
이것입니다, 라고 하면
입니다는 뭐예요?

01:14:26.593 --> 01:14:30.700
서술격 조사 이다에 이 더하기
버니다 더해진 구조죠.

01:14:30.800 --> 01:14:33.335
그러면 이 뿐이라는 게
덧붙은 거예요.

01:14:33.435 --> 01:14:35.039
이거 지금 보조사가 됩니다.

01:14:35.139 --> 01:14:38.636
이것도 비교해줘야 될
문장을 하나 보면,

01:14:38.736 --> 01:14:48.540
그냥 열심히 할 뿐이다,
이렇게 써야 되거든요.

01:14:48.640 --> 01:14:54.328
그러면 이놈은 뭘까요?
이 뿐은.

01:14:54.428 --> 01:14:57.276
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.

01:14:57.376 --> 01:14:59.343
뭐? 의존 명사가 되는 거죠.

01:14:59.443 --> 01:15:01.920
관형어의 수식을 받고
있는 구조이기 때문에

01:15:02.020 --> 01:15:04.445
똑같다고 해서 같은
품사가 아니에요.

01:15:04.545 --> 01:15:07.396
이거는 붙여서 썼어요,
조사일 수밖에 없습니다.

01:15:07.496 --> 01:15:11.011
애는 관형어에 수식을 받는
구조로 띄어 썼다는 거죠.

01:15:11.111 --> 01:15:15.096
그래서 애는 의존 명사.

01:15:15.196 --> 01:15:17.997
다 같지 않습니다, 의존 명사예요.

01:15:18.097 --> 01:15:20.298
다음.

01:15:23.786 --> 01:15:28.957
여기에서 또 찾아보시죠.

01:15:29.057 --> 01:15:32.249
키 큰 사람치고 실속
있는 사람 못 봤다.

01:15:32.349 --> 01:15:34.591
보조사 뭘까요?

01:15:34.691 --> 01:15:35.857
치고.

01:15:35.957 --> 01:15:40.329
이거를 띄어 쓰면 키 큰 사람을
치고, 이렇게 되는 건데

01:15:40.429 --> 01:15:41.678
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.

01:15:41.778 --> 01:15:44.252
키 큰 사람치고 실속
있는 사람 못 봤다.

01:15:44.352 --> 01:15:45.883
그래서 이 치고가 보조사.

01:15:45.983 --> 01:15:47.923
이것도 주격 조사
대체하고 있는 거죠.

01:15:48.023 --> 01:15:50.851
키 큰 사람이 실속 있는
사람이 없다는 의미니까

01:15:50.951 --> 01:15:53.580
애는 지금 주어가 되는 겁니다.

01:15:53.680 --> 01:15:55.077
다음.

01:15:55.177 --> 01:15:58.097
이런 거 는, 지금 보조사죠.

01:15:58.197 --> 01:15:59.870
그런데 이거 이야기하고
싫은 거 아니에요.

01:15:59.970 --> 01:16:02.163
또 보조사 뭐 있습니까?

01:16:02.263 --> 01:16:04.355
에서는 부사격 조사죠.

01:16:04.455 --> 01:16:07.647
자라다를 꾸며주기 위한 부사격
조사니까 부사어고요.

01:16:07.747 --> 01:16:09.271
애예요.

01:16:09.371 --> 01:16:11.934
여러분 이거 호격 조사 아니잖아요.

01:16:12.034 --> 01:16:13.925
야가 호격 조사로 부르는 거.

01:16:14.025 --> 01:16:16.747
철수야, 이렇게 부르는
거면 애가 호격 조사인데

01:16:16.847 --> 01:16:19.779
철수야, 미국에서
자랐으니까 이게 아니라

01:16:19.879 --> 01:16:23.027
철수야 미국에서 자랐으니까,
이렇게 나간 거거든요.

01:16:23.127 --> 01:16:25.058
그 뒤양스를 갖는 야.

01:16:25.158 --> 01:16:28.511
나야 좋지, 이런 식으로 쓴다면
그때 보조사가 되는 거죠.

01:16:28.611 --> 01:16:33.575
이거는 주격 조사 내가, 철수가를
대체하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.

01:16:33.675 --> 01:16:35.683
다음.

01:16:35.783 --> 01:16:38.274
역시나 는 보조사고요.

01:16:38.374 --> 01:16:39.849
도도 보조사입니다.

01:16:39.949 --> 01:16:42.766
그런데 더 있어요.

01:16:42.866 --> 01:16:45.925
뭐냐? 는도 보조사입니다.

01:16:46.025 --> 01:16:49.025
여기에 있는 커녕이에요.

01:16:49.125 --> 01:16:51.862
사실 는커녕이 워낙
같이 잘 붙기 때문에

01:16:51.962 --> 01:16:54.386
아예 한 단어로도 사전에
등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

01:16:54.486 --> 01:16:56.551
실상은 는하고 커녕의
결합 구조이기는 합니다.

01:16:56.651 --> 01:16:58.279

저 커녕이 그래서 보조사.

01:16:58.379 --> 01:17:00.985
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외운다기보다는

01:17:01.085 --> 01:17:04.838
지금 제가 여러 예들을 드리면서
이런 것도 보조사가 되는구나.

01:17:04.938 --> 01:17:08.291
붙여서 쓴 놈은 무조건 조사인데

01:17:08.391 --> 01:17:12.030
붙여 쓰면서 일단 내가 알고
있는 격조사가 아니니까

01:17:12.130 --> 01:17:15.197
그러면 보조사구나, 라는 거를
하나 하나 발견해나가는 거예요.

01:17:15.297 --> 01:17:18.659
그런 힘이 되려면 격조사를
철저하게 외워줘야

01:17:18.759 --> 01:17:21.982
새롭게 발견되는 거를 다
보조사로 취급을 할 수가 있죠.

01:17:22.082 --> 01:17:23.348
다음.

01:17:23.448 --> 01:17:28.039
이거 두 문장을 조금
주의하겠습니다.

01:17:28.139 --> 01:17:30.704
두 문장을 좀 챙겨 보셔야 돼요.

01:17:30.804 --> 01:17:33.092
예나는 커피가 먹고 싶었다.

01:17:33.192 --> 01:17:35.555
여기서 보조사 는인 거 나오죠.

01:17:35.655 --> 01:17:37.815
그다음에 너는 나왔죠.

01:17:37.915 --> 01:17:45.434
그다음에 예는 격조사죠.

01:17:45.534 --> 01:17:54.052
보조사가 뭐냐? 주의하셔야
되는 겁니다.

01:17:54.152 --> 01:17:56.107
애네가 지금 보조사예요.

01:17:56.207 --> 01:18:02.620
가예요, 가면 뭐예요?

01:18:02.720 --> 01:18:06.205

주격 조사 아니면 보격
조사 외웠잖아요.

01:18:06.305 --> 01:18:08.209
을? 목적격 조사.

01:18:08.309 --> 01:18:10.560
그런데 왜 이게
보조사예요, 선생님?

01:18:10.660 --> 01:18:13.495
이게 보조사 문제 나오면서

01:18:13.595 --> 01:18:17.254
마지막으로 끝까지 갔을 때
남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.

01:18:17.354 --> 01:18:18.752
잘 보세요.

01:18:18.852 --> 01:18:23.090
무조건 우리는 문장 내 서술어에서
따라 올라오기로 했습니다.

01:18:23.190 --> 01:18:25.398
문장의 서술어 뭐야?

01:18:25.498 --> 01:18:27.459
먹고 싶다가 서술어야.

01:18:27.559 --> 01:18:31.344
누가 먹고 싶어? 주체가 누구예요?

01:18:31.444 --> 01:18:34.943
예나가 먹는 싶은 거예요,
애가 지금 주어이고.

01:18:35.043 --> 01:18:38.562
이 주어인 예나가를 대체하고
있는 눈이 보조사입니다.

01:18:38.662 --> 01:18:41.049
그런데 문장을 생각해보세요.

01:18:41.149 --> 01:18:46.077
예나가 먹고 싶다고 하면
예나가 뭐를 먹고 싶다가 나와야 돼.

01:18:46.177 --> 01:18:49.358
이거 지금 무슨 자리죠?

01:18:49.458 --> 01:18:51.117
커피를 자리입니다.

01:18:51.217 --> 01:18:53.652
애가 지금 목적어예요.

01:18:53.752 --> 01:18:56.541
그러면 목적격 조사로
가 있어요, 없어요?

01:18:56.641 --> 01:19:00.894

없죠, 가는 주격 조사이거나
보격 조사로 쓰여야 되는데

01:19:00.994 --> 01:19:03.953

목적격 조사로 쓰일
수가 없단 말이야.

01:19:04.053 --> 01:19:05.894

이게 보조사예요.

01:19:05.994 --> 01:19:10.670

그래서 가, 이가 강조를 나타낼
때가 보조사로 쓰입니다.

01:19:10.770 --> 01:19:12.705

그래서 이거는 문장을 찾아보고

01:19:12.805 --> 01:19:21.137

이게 주어나 보어 자리가 아니면
강조를 나타낸 거구나.

01:19:21.237 --> 01:19:23.851

보조사구나, 이렇게
판단하면 됩니다.

01:19:23.951 --> 01:19:27.095

그래서 이, 가랑 을,
를이 보조사가 있어요.

01:19:27.195 --> 01:19:29.560

다음 밑에 있는 문장도 잘 보세요.

01:19:29.660 --> 01:19:32.515

너는 어찌자고 혼자
PC방에를 갔니?

01:19:32.615 --> 01:19:37.923

이랬을 때 이거 없어도 돼요.

01:19:38.023 --> 01:19:42.102

이미 PC방에, 이 예가
부사격 조사잖아요.

01:19:42.202 --> 01:19:47.203

그래서 PC방에 가다, 라고 해서
이미 애는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?

01:19:47.303 --> 01:19:53.026

부사어가 만들어진 거예요.
이해 되시죠?

01:19:53.126 --> 01:19:55.431

그런데 목적어를 또 만들었다고요?

01:19:55.531 --> 01:19:56.780

그럴 수가 없어요.

01:19:56.880 --> 01:20:01.864

그러니까 이 를은 역시나 덧붙여서
강조해주는 기능밖에 없는 거죠.

01:20:01.964 --> 01:20:07.821
그렇기 때문에 애는 필요가 없는

01:20:07.921 --> 01:20:10.953
진짜 목적어를 만드는
격조사는 아니라는 겁니다.

01:20:11.053 --> 01:20:13.538
그래서 애 역시도 보조사.

01:20:13.638 --> 01:20:18.664
정말 극악의 난이도로 갈 경우에 이러한
것들이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.

01:20:18.764 --> 01:20:22.697
이렇게 해서 다양한 보조사들까지
경험해봤는데 사실 더 있어요.

01:20:22.797 --> 01:20:25.426
그런데 다 할 수는 없으니까
이 정도까지 정리하고

01:20:25.526 --> 01:20:28.023
마지막에 접속 조사,
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

01:20:28.123 --> 01:20:30.057
너무나 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

01:20:30.157 --> 01:20:32.928
첫 번째, 중기와 혜교가
드라마를 찍었다.

01:20:33.028 --> 01:20:39.581
서술어 찍었다의 주어로 중기, 혜교
사이에 끼어 있는 와, 접속 조사.

01:20:39.681 --> 01:20:43.043
이 자리에 량이나 또는
하고가 와도 접속 조사.

01:20:43.143 --> 01:20:45.779
중기하고 혜교가 드라마를
찍었다, 이런 식으로.

01:20:45.879 --> 01:20:49.298
중기랑 혜교가 다른 사람
몰래 만나기 시작했다.

01:20:49.398 --> 01:20:54.669
그러면 중기랑 혜교 사이에
끼어 있는 량, 접속 조사.

01:20:54.769 --> 01:20:57.129
다음 가겠습니다.

01:20:57.229 --> 01:20:58.937
중기하고 혜교는 드디어 결혼했다.

01:20:59.037 --> 01:21:03.085

중기, 혜교 사이에 껴 있는
하고, 접속 조사.

01:21:03.185 --> 01:21:09.593

그래서 접속 조사의 종류로는
와, 과, 이랑, 하고.

01:21:09.693 --> 01:21:13.375

단 만약에 애네들이 이 뒤로
넘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?

01:21:13.475 --> 01:21:16.765

혜교가 중기와 드라마를 찍었다,
그러면 부사어 된다고요.

01:21:16.865 --> 01:21:21.990

혜교가 중기랑, 이렇게 가면 이때의
랑이 부사격 조사 된다고요.

01:21:22.090 --> 01:21:24.968

혜교는 중기하고 드디어 결혼했다면

01:21:25.068 --> 01:21:26.860

중기하고에 하고는 부사격 조사.

01:21:26.960 --> 01:21:28.290

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해요.

01:21:28.390 --> 01:21:30.557

A와 B 사이에
껴 있냐, 안껴 있냐.

01:21:30.657 --> 01:21:32.513

이거를 봐줘야 되는데.

01:21:32.613 --> 01:21:36.799

이게 지금 서술어의 형태에 따라서
판단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.

01:21:36.899 --> 01:21:39.306

잘 보세요.

01:21:39.406 --> 01:21:41.073

이거 지금 없어도 되죠.

01:21:41.173 --> 01:21:42.661

중기가 드라마를 찍었다.

01:21:42.761 --> 01:21:44.999

혜교가 드라마를 찍었다,
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

01:21:45.099 --> 01:21:48.830

그러니까 애는 두 개 문장의
결합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.

01:21:48.930 --> 01:21:51.163

이해되십니까?

01:21:51.263 --> 01:21:53.866

애는 그래서 이런 거를

접문장이라고 할 거예요.

01:21:53.966 --> 01:21:57.246
이게 다음에 해야 될 부분이지만
이것도 추가적인 겁니다.

01:21:57.346 --> 01:21:59.201
두 문장이 합쳐졌다고 한 거예요.

01:21:59.301 --> 01:22:00.722
중기가 드라마를 찍었다.

01:22:00.822 --> 01:22:03.012
혜교가 드라마를 찍었다,
이게 합쳐진 거예요.

01:22:03.112 --> 01:22:05.258
그러면 접이 된 겁니다.

01:22:05.358 --> 01:22:08.150
홀문장과 접문장 이렇게
2개로 나누는데

01:22:08.250 --> 01:22:10.521
문장 2개가 합쳐졌으니까 접문장.

01:22:10.621 --> 01:22:13.374
그런데 애 읽어볼게요.

01:22:13.474 --> 01:22:15.786
혜교가 다른 사람 몰래
만나기 시작했다.

01:22:15.886 --> 01:22:17.262
이거 뻘다고 생각해보세요.

01:22:17.362 --> 01:22:20.364
혜교가 다른 사람 몰래
만나기 시작했다.

01:22:20.464 --> 01:22:24.129
이러면 누구를 만났는지가
전혀 안 나와요.

01:22:24.229 --> 01:22:26.561
혜교가 드라마를 찍었다,
그러면 완벽한데.

01:22:26.661 --> 01:22:28.703
혜교가 다른 사람 몰래
만나기 시작했다.

01:22:28.803 --> 01:22:30.178
뭐야? 누구 만났다는 이야기야?

01:22:30.278 --> 01:22:31.285
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?

01:22:31.385 --> 01:22:34.269
그래서 이게 중요한
게 중기랑 혜교가,

01:22:34.369 --> 01:22:36.555

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결국
이게 뭐가 되는 거야?

01:22:36.655 --> 01:22:38.571

함께 주어로 자리 잡아요.

01:22:38.671 --> 01:22:41.146

이게 하나의 주어로
인정을 받아야 돼요.

01:22:41.246 --> 01:22:44.393

애는 따로 따로 주어로
볼 수 있는데.

01:22:44.493 --> 01:22:47.769

독립된 서술어를 지금 중복
두 가지를 가지고 보지만

01:22:47.869 --> 01:22:50.027

애는 중기랑 혜교를 떼어낼
수가 없는 거죠.

01:22:50.127 --> 01:22:54.302

둘이서 만나기 시작한 거니까
이러면 애는 홑문장,

01:22:54.402 --> 01:22:56.940

하나짜리로 보게 된다는
이야기입니다.

01:22:57.040 --> 01:22:58.305

그러면 질문.

01:22:58.405 --> 01:23:02.625

마지막 거는 홑문장일까요,
겹문장일까요?

01:23:02.725 --> 01:23:05.857

혜교는 드디어 결혼했다, 가능하죠.

01:23:05.957 --> 01:23:08.075

중기는 드디어 결혼했다,
가능합니다.

01:23:08.175 --> 01:23:11.137

따로 따로 쓰일 수 있는
문장이 함께 쓰이면서

01:23:11.237 --> 01:23:13.581

둘이 결혼했구나, 라는 의미를
더해주게 되는 거죠.

01:23:13.681 --> 01:23:16.419

그래서 애 같은 경우에는 겹문장인데

01:23:16.519 --> 01:23:20.553

사실 이게 꼭 둘이 결혼했다는 것을
판단할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

01:23:20.653 --> 01:23:24.813

그래서 애는 중의적인 해석도
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.

01:23:24.913 --> 01:23:29.104

증기하고 혜교는 드디어
결혼했다는 게

01:23:29.204 --> 01:23:32.036

따로 따로 각각
결혼했다는 이야기냐,

01:23:32.136 --> 01:23:33.670

아니면 둘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냐.

01:23:33.770 --> 01:23:35.397

이런 모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.

01:23:35.497 --> 01:23:39.441

그래서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
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

01:23:39.541 --> 01:23:42.708

접속 조사에 대한 내용
A, B 건주는 거.

01:23:42.808 --> 01:23:45.157

사이에 끼 있어야 된다,
기억하셔야 됩니다.

01:23:45.257 --> 01:23:49.446

이렇게 해서 오늘 조사까지
다 공부해봤습니다.

01:23:49.546 --> 01:23:52.077

다음 시간에는 용언을 공부하는데

01:23:52.177 --> 01:23:57.859

체언도 그렇고 관계언도
그리고 할 양이 많았어요.

01:23:57.959 --> 01:24:01.402

그런데 용언은 더 많아요,
그래서 두 개로 나뉘어요.

01:24:01.502 --> 01:24:03.097

그래서 용언은 두 번 공부합니다.
아시겠죠?

01:24:03.197 --> 01:24:07.326

복습 잘 하시고 그냥
넘어오지 마세요.

01:24:07.426 --> 01:24:08.918

그냥 강의 넘어오지 마시고

01:24:09.018 --> 01:24:14.987

지금 이거 다 정리하시고 정확하게
외웠다, 공부했다 싶으면

01:24:15.087 --> 01:24:17.037

넘어오는 거예요,
약속하시기 바랍니다.

01:24:17.137 --> 01:24:18.420
수고하셨습니다.